Buddhanews.com

현대불교

辛卯年

지혜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제819호 |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음력 12월 16일 · 불기 2555년 · 주간)

민족문화 수호의 날까지 정진 또 정진



"민족문화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의 그날까지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발원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도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열의를 식힐 순 없었다.

조계종은 1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를 봉행했다.

이날 1080배 정진에 참여한 300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오늘 올리는 참회와 발원을 기점으로 불교계와 조계종단이 먼저 자성하고 변화하겠다"며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 올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총무원장 스님도 못보는 선암사 수장고

순천시, '관계자만 볼 수 있다' 개방 거부 파문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순천시의 거부로 선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를 열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1월 12일 신년하례법회 후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종단 주요 스님들이 선암사 성보문화재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장고를 열람키로 했다.

4일 순천시에 수장고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11일 "박물관 수장고는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거절 당했다.

선암사는 11일 재차 공문을 보내 "순천시 소속 학예사 동행 하에 12일 수장고 기계실을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여름 물이 들었던 수장고의 내부 실태를 우려해서 였다. 순천시는 선암사의 재요청에도 12일 "수장고를 관람하기 위한 기계실 점검은 맞지 않는다. 점검 일정을 다시 통보해 달라"며 수장고 개방을 재차 거부했다.

선암사와 순천시의 불편한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암사는 구랍 13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선암사 성보박물관 장직을 개신교 안수집사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겸임하면서 수장고에 소장된 문화재 2400여 점이 진위 감정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선암사 도난문화재의 약 90%가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관리를 하는 동안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거주하는 스님들이 자기 절 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도 못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스님은 순천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난해에는 순천시에서 오후 10시 선암사 출입문을 닫아 주지인 본인조차 선암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관리를 맡은 것이 선암사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선암사의 정상화 기자회견 이후 순천시는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사찰인 선암사의 상황을 악이용해 재산관리 부실의 책임을 불교계 내부의 갈등으로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선암사는 "재산관리인 해제와 별개로 순천시가 지난 40년 간 선암사를 관리하는 동안 벌어진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방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 순천시는 조사팀을 구성해 선암사 성보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덕현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제역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

불교계, 동물은 반려자이자 도반 "예방접종 확대하라"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데도, 죽여서 먹는 자는 곧 나의 부모를 먹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죽여서 먹는 것이니라. 만일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구하여 보호하고 그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범망경〉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15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희생 동물을 위한 천도재가 전국 각 사찰에서 봉행됐다.

구랍 30일 경기도 가평 백련사(주지 승원)에 이어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월 4일 초하루 법회에 구제역 확산방지 및 희생가축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

축산 농가가 없는 서울에서도 천도재는 이어졌다. 6일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봉행된 천도재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구제역으로 목숨을 잃은 생명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13일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희생가축을 위한 천도재'와 함께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 농가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도 14일 구제역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구제역 창궐로 인해 부득이 살처분 당하는 가축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태는 인류의 무절제한 물질적 탐욕과 환경 파괴, 생명에 역행하는 유해식품과 동물사료의 생산 등 반생명적 식습관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이상언 기자

"우리는 정부인사 만나겠다"

천태종, 민족문화수호 관련 독자 노선 밝혀

천태종이 조계종과는 다르게 정부 · 여당인사와의 접촉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 여당 인사들을 초청하겠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정산 스님은 "조계종이 정부 · 여당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라 종교편향 정책으로 인한 위화감이 원인"이라며 "천태종은 정부와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 조계종에서 요청해 와도 정부 · 여당과의 단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와 정부가) 상생해야 한다. (정부 · 여당 인사들을) 배척했다가 불교를 완전히 등져버리면 불교가 설자리가 없다. 뜻을 같이 하는 정부 · 여당 인사가 있다면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천태종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부처님 탄생지 발굴 시작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유적지 조사를 위해 세계 고고학자들이 나섰다.

네팔 현지 일간지인 히말라얀 타임즈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고고학 전문가들과 룸비니 개발신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영국 더럼대학 고고학과 교수인 로빈 커닝엄 부총장을 단장의 지휘 하에 3년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네팔위원회는 조사단이 지표면 아래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위치를 규명하기위해 작업하며 성지 순례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발은 유적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819호 CONTENTS



특별기획 10/11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가다(하)



기획연재 12
선원총림을 가다



14/15
묵산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24 정찬주의 선 여행



새 연재 소설
수리아의 검 16



소설 '수리아의 검'은 동양적 환타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이면서 세계의 창조와 소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생이 없는 소년' 무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예비)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한국 보이차 설맞이 할인행사

청와대 사랑채 납품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지난해 여름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2011년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茶이지만 일 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숭늉처럼 드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찻잎으로 만든 초의병차는 무농약, 친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국인의 미각에 맞는 깊은 맛과 향을 차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초의차사업단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한국보이차로 추운 겨울에 온기를 전해 드립니다.



한국 보이차 설맞이 할인행사 가격

구분	보이차 300g
할인 가격	25,000원 → **15,000원**
할인 기간	2011년 1월 31일까지
차 만든 시기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 2010년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 과의 오찬간담회 6월 12일



▲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 참가


▲ 일본 기타나고야 시장 방문


▲ 2010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초의선사학술세미나



▲ 초의학술문화원—목포우체국 업무제휴협약 7월 22일


▲ 광택시예절교육관 한국 보이차 제다 실습 6월 17일


▲ G20 정상회의기념 어린이 행다법 시연


▲ 청와대 사랑채 다도 체험


▲ 청와대 사랑채 행다 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

청와대사랑채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다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상월 조사 100주년 기념 사업 집중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 사업계획 발표



천태종이 불기2555년(2011년)을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의 해로 정하고 기록사진전, 유물전시관 개관, 원각불교문화원 설립, 한국불교미술종합대전 등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친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산 스님은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복지사업 강화로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국내 인재양성과 건전한 다문화 사회 이룩, 세계 불교교류에 힘쓰겠다"며 상월 조사 100주년 기념사업, 복지사업, 국제불교우호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을 발표했다.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상월원각대조사 생애〉 〈한국천태종사〉 〈대조사어록 및 법어집〉 등 서적 출판을 비롯해 △상월 조사의 유품 등이 전시될 유물전시관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미술종합대전 △천태차문화대회 △지화특별전 등이다.

복지사업은 (가칭)천태승려종합복지시설 설립, 대북지원 사업, 저개발 불교국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천태승려종합복지시설은 구인사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며, 천태종 스님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조회를 운영해 종도들에게 장례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 명락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인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돕고, 내국인들의 다문화인식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인 템플스테이 △다문화음악제 △다문화가족 합동혼례식 △다문화가족 걷기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산 스님은 "선진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익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육성과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천태종은 단양에 원락불교문화원을 설립해 청소년 지원활동을 벌인다.

정산 스님은 "인재 육성은 불교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불사이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한 만큼 원각불교문화원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종립 금강대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올해에는 기숙사를 신축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특히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원각학술상을 제정해 우수 불교학자를 발굴 · 육성키로 했다.

국제불교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열릴 한중 천태국제학술대회는 6월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인 낙양 백마사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한마음수련원도 연내에 착공한다.

또, 천태종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축제한마당이 될 천태복지대회 개최, 진해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천태복지연구소 개소 등도 올해 중 추진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종편 선정, 불교계 방송언론 '긴장'

광고 시장 위축·언론 다양성 위협 우려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 선정 후 각 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긴급 종편 토론회를 1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종편 선정에 대한 토론회를 11일 열었다.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편 선정사에 대한 전문의약품 ·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불교계 언론도 종편 선정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불교방송은 종편 출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불교TV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편 선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과 조계종 미디어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적 스님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기범 기자**

"종교언론 공동 대응 필요하다"

조계종 미디어 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 적 스님



조계종 미디어 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적 스님(사진)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선정사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송사만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과다한 종편 사업자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약 · 주류 광고 및 중간 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헌 판결로 광고시장 축소는 이미 우려돼 왔다. 향후 방송광고공사 해체 과정을 지켜보며 불교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방송 언론 전체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적 스님은 또 광고 시장 축소로 불교 방송언론의 타격이 자명하기 때문에 불교계 방송언론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 80% 수익 삭감 우려된다"

박 원 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불교방송은 전체 광고의 80%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배분받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가 위헌 판결을 받고, 종편에 4개 사업자가 선정되자 불교방송은 광고 수익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종편이 출범하면 70~80%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광고 시장이 확장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 방송의 빅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다양성의 마지막 보루인 종교방송과 지역민영방송의 위축으로 종편 선정사의 언론 독점 심화를 우려했다.

"불교계 종합미디어를 고민해야 한다. 종편사들이 불교계 비방 보도를 일삼으면 불교계는 휘청 거릴 수 밖에 없다."

"불자 결집된 힘 보여줘야"

자승 총무원장·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성도재일 맞아 쓴소리



성도절을 맞아 전국 3000여 사찰에서 MB정부를 규탄하는 동시법회가 열린 가운데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사진)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회장 효경)는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1월 11일 성도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승 스님은 "지난 국회에서 불교문화재 예산 등이 쉽게 처리된 것은 불교신도들의 힘이 결집되지 않아 여야 정치인들이 불교를 홀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불교가 일치단결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불교를 외면할 것이라는 질타다. 자승 스님은 최근 종단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이 정부여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민족문화재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자들이 종단을 믿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도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촉구했다. 조계사는 11일 대웅전에서 민족문화 수호와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성도재일법회와 삼보일배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토진 스님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유지해 가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성도재일을 맞아 깨우침이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세상이치를 모르고, 4대강 사업 등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토진 스님은 또 "대통령이 돈에 눈이 멀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잘 살고 있으니 대포보다는 화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스님들과 불자들은 법회 후 경내에서 민족문화 수호와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3보 1배를 가졌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이 날 스님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체투지로 행렬의 앞길을 열었다. **박기범 기자**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중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6차 회의를 열고 은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지 요청을 수용해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은해사 교구선관위는 10일 "법규위가 7일 제70차 회의에서 위법한 결정으로 정상적인 재선거가 불가하다"며 중앙선관위에 17일 예정된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의 중지와 연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법규위원회에 후보자를 결정한 법적 근거 등을 소명하라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동섭 기자**

경기도 39개 사찰에 61억원 지원

조계종 사찰 대응 주목

조계종이 정부 예산지원을 거부한 가운데 경기도가 관내 39개 사찰에 보수지원비 6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조계종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1월 13일 "올해 도내 전통사찰 중 39개 사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사찰은 수원 용주사, 부천 석왕사, 여주 신륵사, 과천 연주암, 남양주 불암사, 파주 보광사 등이다. 이들 사찰에는 4000만원~1억8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난해 해당 사찰의 요구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찰에서는 종단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계종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3월 8일 화요일**

금강선원 기로원 입소자 모집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구제역, 윤회 알면 해결된다

불자 먼저 육식 최소화… 가축행복권 보장해야



서울 도선사는 1월 13일 구제역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회생 가축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1월 13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150만 마리에 이른다. 구제역 살처분과 백신접종으로 지출된 정부예산은 2조원대로 추산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될 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구제역 인근에 있는 전염되지 않은 가축들을 몰살시켰다. 하지만 구제역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천도재 이상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구제역, 인간의 욕망과 위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이윤만을 추구하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초식동물인 소에게까지 육류 사료를 먹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의 생태철학〉에서 "불결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독기를 품는다. 우리는 삼독의 하나인 '분노'에 가득찬 고기의 살점을 맛있다고 먹고 그 인간이 다시 욕망과 투쟁의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체인 동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량공급과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기계적 존재로 전락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 혹은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나 관리권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인간도 윤회의 수레바퀴를 떠돈다고 봤다. 그래서 불자들이 지켜야할 첫 번째 계율이 바로 살아 있는 존재(숨 쉬는 존재)를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 대안은 있는가?

오계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불교도는 많지 않다.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개인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처님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보다 파리를 때려잡는 살생행위를 더 나쁘게 봤다. 대승불교에서는 채식주의를 의무로 두고 강조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식육의 관행을 묵인한다면 전 세계에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의 잔혹한 사육과정과 도축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육식을 줄여나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불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외곽 폴리페이스 농장에서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는 새로운 축산 형태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폴리페이스 농장에서 동물들은 모두 토양에너지로 신선하고 성숙한 풀을 먹고 자란다. 농장주 조엘은 동물의 삶의 모든 단계를 마지막까지 자연과 동물에 맞도록 관리한다. 그는 동물이 동물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도살시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경제 구조가 변하지 않는한 모든 축산업자가 집중가축사육시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나 임시방편의 대응책이 아닌 윤회사상에 근거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상언 기자

구제역 확산에 사회복지 '주춤'

재가 서비스 중단 위기… 대응책 마련 고심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일 확산되는 구제역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들의 마을 출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 방문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거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에 출입하자 주민들은 외부 오염 물질이 전파될 것을 두려워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축산 농가를 출입할 때 소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주민 요청으로 출입하지 못하는 마을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복지관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복지관 측에서는 소독을 강화했다며 마을 출입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보지만 피땀 흘려 키운 소와 돼지의 안전을 우선하는 주민들은 완강했다.

지역 축제 일정에 맞춰 캠페인을 준비한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구제역 여파를 피하지 못 했다. 당초 이 기관은 국내 대표적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를 통해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를 1월 14일 전격 취소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인근 일죽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재가서비스를 4일 잠시 중단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출입 자제를 요청해온 것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 3명의 주간보호 대상자와 12명의 밑반찬 배달 서비스 대상자들이 일죽면에 거주하고 있다.

이병호 파라밀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장은 "서비스가 중단된 동안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루 빨리 구제역이 사라기지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특별기고

천도재, 중생과 하나되는 길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간다. 이른바 육도윤회(六道輪廻)이다. 육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인간은 현세(現世)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 한 곳에서 내세(來世)를 누리게 된다. 윤회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의 연속이다.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불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육도 중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 고기, 벌레, 뱀까지도 모두 포함한 축생도(畜生道)가 있다. 소는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묘사하는 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출가 이전의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의 고타마는 가장 좋은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자들은 소를 우보살(牛菩薩)이라는 호칭으로 예경의 마음을 담아왔다.

시골에서 자란 장년층은 어릴 때 소를 몰고 들판에서 소꼴을 베며 쇠죽을 끓이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소는 농사의 또 다른 일꾼이며 살림 밑천이고, 친구며 가족이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직전의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며 눈물짓던 시골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소를 가족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있다. 구제역으로 1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돼 매장됐다.

조계종에서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넋과 상처받은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봉행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불교의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천도재는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천도재를 통해 희생된 가축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아울러 시름에 잠긴 가축농가 주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무해 주어야 한다. 종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의태 이사(죽음교육상담협회 이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율 스님과 전시회 관계자들이 4대강 답사 사진을 손에 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지율 스님은 조계사 신도회관 공터에 '4대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상설 전시'를 마련하고 1월 14일~3월 4일까지 4대강 답사와 지율 스님이 촬영한 낙동강 사진 등을 전시한다.

박기범 기자

"대법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황우여, 법조계 기독모임서 망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전 국가조찬기도회장)이 1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법조계 기독교신자 모임 '애중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종교편향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인방송의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은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꼭 대법관 한 분을 초청해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유력인사를 포함해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가족 등 300여 명이 모였다. 현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까지 종교편향이 미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부산 범어사 방화범에 현상금 1000만원

구랍 15일 발생한 부산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범인 검거의 결정적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식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병기나 부기



일 주 문



혜총 스님, 美 칼슨市 명예시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구랍 30일 미국 LA 등지에서 해외 포교를 한 공적으로 캘리포니아 칼슨시 명예시민을 위촉받았다.



현성 스님, 독거노인 새터민 위로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18일 서대문구청에서 관내 독거노인과 새터민 45명에게 쌀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대중·노무현 기념사업회 총회

김대중 · 노무현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1월 14일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이사진 확대를 논의했다.



2011 인드라망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2월 19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2011년 정기총회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제11회 원담 서예 대상전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2월 15일까지 수덕사 선 미술관이 주최하는 제1회 원담 서예 대상전 출품작을 모집한다.



능인선원 청소년, 홍련암 참배

서울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1월 22~23일 양양 낙산사 홍련암에서 능인 중 ·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진행한다.

■〈인사〉 정병조 금강대 제4대 총장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에 정병조 금강대 이사가 선임됐다. 금강대학교 학교법인(이사장 도용 · 천태종 종정)은 1월 1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58차 이사회를 열고 정병조 이사를 새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4년간이다.

■〈입적〉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



대구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 스님이 1월 7일 거제 신광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4년, 세납 77세.

1957년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철웅 스님은 1958년 대구 동화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196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69년부터 20여 년간 성전암에서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수행에 매진했다.

복지에는 불교 발전 이끌 힘이 있다

화 평 스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유공 표창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 최초로 2006년 서울시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중심이었던 평생교육이 노인복지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관 측은 평생교육기관 지정 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관장인 화평 스님(사진)은 구랍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0 평생교육 유공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불교계 인사 중 유일한 선정이었다.

"배움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욕은 상당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검정고시반,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취업 관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드게임 놀이지도사' 양성과정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레크리에이션과 보드게임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교육'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놀이연구소와 연계해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으며 급여도 지급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있다.

구랍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랑의 와플 하우스'는 광진노인복지관의 자랑이다. 2008년 서울시 고령자 육성기업으로 시작한 '사랑의 와플 하우스'는 2010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거쳐 노동부 인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질 좋은 커피와 각종 차,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르신들과 복지관의 노력으로 수익도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사랑의 와플 하우스'는 2008년에 선정된 서울시 고령자 육성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형 택배회사들과 연계해 진행하는 어르신 택배 배달 사업은 지난해 1억 7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카네이션 학교'는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비문해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검정고시반도 운영하며 매년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70% 이상 출석한 경우 인근 장안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학구열을 자극하고 있다.

"타인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했다. 출가 후 은사 스님께서 보현행이 기본이라며 수행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화평 스님은 불교 사회복지와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속의 전문화된 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또 국제개발구호NGO인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해외 구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평 스님은 국내 불교 사회복지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웃 종교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불교계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복지는 불교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당장의 가시적 성과나 비용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면 안 된다. 느리지만 잔잔하게 멀리 퍼질 수 있는 것이 복지의 힘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대불련 DB구축, 네트워크 강화할 터

이 인 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회장



"10년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지원팀'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구랍 25~26일 서울유스호스텔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8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 제49차 신임회장에 이인근 前 대불련 전북지부장(전북대 05학번 · 사진)을 선출했다.

이인근 회장은 "매년 시행되는 대불련의 단기적인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데이터구축을 통한 대불련 네트워크 마련 △봉사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의 장 확대로 대불련 리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불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현재 대불련의 중앙-지부-지회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불련 회원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축해 해마다 데이터를 재수집하느라 버려지는 시간을 절약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본인적사항 뿐 아니라 현재 · 과거의 활동내역, 최근연락날짜, 지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회원들에게 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불련에서는 연희단, 문화부, 종교평화모니터요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학 재학 중에 이뤄지는 것이라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봉사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연등축제와 연희단 활동, 앞으로 시행될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활동 등에 봉사활동이 인증 되도록 하겠다"며 "일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를 만나고 대불련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학생활 동안에만 대불련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후배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불련에 관심을 갖는 법우 한명이라도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고민을 해준다면 2020년에는 더욱 많은 대불련 후배를 양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인천·경기 불교 활성화 하겠다"

전 문 기 인천경기표교사단 신임단장



"인천 · 경기지역의 사찰 포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포교 불모지로 낙인찍혔던 인천 지역의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사단이 나섰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을 통합해 포교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활동지역이 광범위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1월 9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인천 · 경기지역단을 출범하고 초대 단장으로 전문기(62, 법명 덕암 · 사진) 포교사를 선출했다.

전문기 포교사는 "어느 지역보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 경기지역에서 사찰과 연계해 불교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4년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맞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 포교사들이 흥겹고 재밌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인천 ·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자비율이 적어 인천경기지역단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다가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맞춰 포교활동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전국산악인 연합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준동)가 구랍 2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됐다.

단체는 1997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스님을 증명법사로,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교계 원로를 고문으로, 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사 사장단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불교문화유산 및 수행도량 보호사업, 청정국토 가꾸기, 1산악회 1산(山) 지키기 사업, 자비 효도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한국의 명찰시리즈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천 년의 세월 따라 이어진 천 년의 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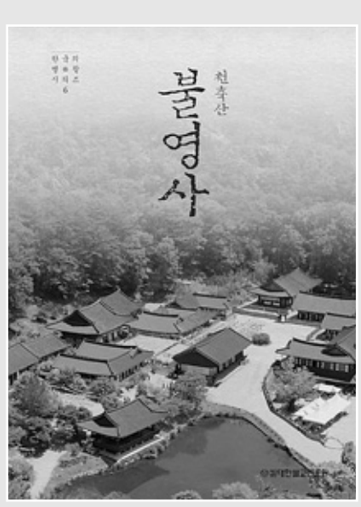
신국판 | 288쪽 | 값 20,000원

부처님의 어머니 품속처럼 정겨운 곰절



신국판 | 212쪽 | 값 20,000원

은은한 법향으로 사시사철 향기로운 사찰



신국판 | 212쪽 | 값 20,000원

※2009년 발행 : 솥한 외침에 맞섰던 강화도를 대표하는 호국사찰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보고
오대산 중심사찰로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전등사』 신국판 | 172쪽 | 올컬러 | 값 18,000원
『화엄사』 신국판 | 228쪽 | 올컬러 | 값 20,000원
『월정사』 신국판 | 232쪽 | 올컬러 | 값 20,000원

불교문화 총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교문화의 모든 것!

부처님이 앉은 높은 자리



허상호 지음 | 176쪽 | 올컬러 | 값 20,000원

깨달음의 길로 이르는 길



권중서 지음 | 216쪽 | 올컬러 | 값 20,000원

이 땅을 지켜낸 호국터전



이병두 지음 | 208쪽 | 값 20,000원

※2010년 발행 : 부처님 향한 아름다운 장엄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닫집』 심대섭·신대현 지음 | 232쪽 | 올컬러 | 값 20,000원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전보삼 지음 | 230쪽 | 올컬러 | 값 20,000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

잘 고른 난방 설비 열 화주 안 부럽다

사찰 특성 고려한 시스템 꼼꼼히 따져야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에너지연구팀이 2010년 1월 발간한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사찰 종무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난방 방식은 크게 4가지다.

'전기보일러+에어컨' '가스보일러+에어컨' '기름보일러+에어컨' '심야전기보일러+에어컨' 등이다. 여기에 최근 고효율 장비인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지열히트펌프도 자주 사용된다.

최근 사찰들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고심하면서 다양한 설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체들도 심야전기보일러, 화목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등 저마다 특색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세한전기에너지(055-223-0487)는 공기히트펌프와 심야전기·화목·태양열 보일러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다.

공기히트펌프는 기름대비 약 1/4 수준의 유지비로 난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새한은 겨울철 고온수 유지를 위해 히트펌프 냉매를 R-22 혹은 R-407c 두 종류를 사용한다. 겨울철 급탕 온수를 5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동재상운전이 필요하며 히트펌프 냉매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온수 유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심야전기보일러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방 온도를 전자동으로 조절하는 헤드전동벨브 방식을 채택해 난방비 절감 효과를 높였다. 업계 최초로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전자부품을 적용했으며 보일러의 동작상태 및 이상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국내에서 손꼽힌다.

성화에너지(053-526-2100)는 경유 대비 50~70%, 가스 대비 30~50% 난방비가 절감되는 점을 강조하며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를 판매하고 있다. 성화에너지는 2010년 특허청으로부터 온수관 보일러용 마감장치 특허를 획득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온수관 보일러'는 시공이 간편하고 절연이 우수한 X-L관 자체를 보일러 겸 난방관으로 활용한다. 성화에너지는 난방관 보일러가 밀폐 공간 내 가열량 온도가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는 난방을 위한 별도의 보일러실과 배관설비가 필요 없어 시공비도 다른 설비에 비해 34% 가량 적게 든다. 성화에너지는 동화사, 해인사 및 여러 사찰에서 공양간과 법당의 난방공사를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동나비엔(1588-1144)은 다양한 형태의 보일러와 냉방, 온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심야전기보일러는 30년 노하우의 과열방지기와 저수위 차단기, 동파방지기, 낙뢰보호장치가 완비돼 있다. 또한 축열조는 내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이봉이 삽입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구입 시 부식방지와 수명 연장을 위한 부식방지제를 무상 공급해 보일러의 수명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출 시에도 전화 한 통으로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과 직영 콜센터를 통한 1년 365일 출동 서비스는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있다.

귀뚜라미 보일러(1588-9000)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효율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갖추고 있다.



사찰들은 에너지 효율과 난방비 절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천곡사의 태양광 설비 시공 모습.

각 사찰 효율적 난방 설비 관심
업체들 맞춤형 특성화 기기 경쟁

이 중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는 화목과 기름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연소실로 구성돼 있다.

이 제품은 기름 열교환기 속으로 장작 화염과 연기를 내보내지 않고, 그을음에 의한 열 교환 능력 저하가 없어 열손실이 적다. 화목 연소실이 횡형 3PASS 연소방식을 채택해 열교환기를 세 번에 거쳐 나가기 때문에 기존 화목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높다.

특히 화목 투입구와 연소실이 크기 때문에 하루 2회 정도만 나무를 투입하면 하루 난방이 가능하다. 연소실 안에 물이 흐르는 수관 로스톨(연료 받이)을 적용해 장작, 조개탄, 석탄 등의 여러 가지 고체 연료 연소가 가능해 농어촌 등에 안성맞춤이다.

안전성도 과열안전, 동파방지, 저수위 조절 기능 등의 자동제어 컨트롤 시스템으로 강화했고, 보일러 내 수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공기량을 조절해 연료 절감과 편리성을 높였다.

슈퍼에너텍(02-471-2356)은 국내특허와 세계특허를 출원한 축열 순간식 전기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각종 사찰 시공 경험이 장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슈퍼에너텍의 순간식 보일러는 50~2700ℓ의 소형 2중 격리 쳄버로 이루어진 급속 가열방식으로 내부의 하부 저온수를 고온으로 급속 가열한다. 이렇게 가열된 고온수를 상부 집수로 공급해 상단부에 존재하는 고온수와 혼합해 난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체에 가열된 온수를 한 번 더 가열한 후 격리된 쳄버에서 트위스트 방식으로 급속 가열하는 최첨단 기술로 열효율을 극대화했다.

축열식 전기보일러는 기름 대비 60~80%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슈퍼에너텍에서는 태양열 온수기와 벽걸이형 순간전기보일러도 시공하고 있다.

이상국 슈퍼에너텍 대표는 "사찰에서 난방 설비를 선택할 때는 소비 전력이 낮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시공 후 사찰 특성에 맞지 않아 전면 철거하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정부 지원으로 설비 부담 덜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시행

사찰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고 싶어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부 지원책 활용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매년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저탄소배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집광채광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건물 소유자(대표자)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등이다.

지원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희망자가 전문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공전문기업이나 제조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센터는 신청서류 검토 후 기준 점수 이상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한다.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소비자 품질만족 등급에 따른 보조금액을 협의하게 된다. 이 때 소비자 품질만족도 및 설치가액을 제출해야 하는데, 에너지원별 시공 주요설비의 제품 모델명, 공고된 에너지원별 시공기준단가의 시공가액 비율(기준단가 이하의 비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의 공고 기준단가가 650만원/kW 경우, 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제시 가격(시공가액)을 585만원/kW으로 제시할 경우 90%(제시비율)를 기재하면 된다.

보조금 단가는 소비자 품질만족도 및 설치가액 점수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적용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게 되면 기준단가 제시비율을 적용받고, 이후 B~E등급까지는 5%씩 차감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올해도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2011년 지원계획은 1월 중순 경 확정 발표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반야심경'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

포교연구실, 애플리케이션 2종 개발

모바일 포교 콘텐츠 제공 및 앱 활용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2종을 출시했다.

포교연구실은 '헬로달마스쿨(Hello Dharma School)' '반야심경(독송)'을 출시해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KT올레마켓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OS의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주)리토스와 공동개발한 '반야심경(독송)'은 아이패드용 앱까지 별도로 개발해 스마트폰의 제약에서 벗어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포교연구실 관계자는 "향후 포교연구실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명상 콘텐츠와 다양한 경전 독경 콘텐츠를 정리해 모바일화 하는 한편, 종단 차원에서 다양한 포교 및 문화 콘텐츠 자료를 분류, 정리하고 제공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약학대학 정원 30명으로 늘어

동국대 약학대학 정원이 3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4일 "신설 약대가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증원했다"며 "3월 개교예정인 15개 신설약대의 입학정원을 학교당 5~10명씩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명에서 10명 늘어난 30명의 신입생을 2012학년도부터 모집하게 됐다.

조동섭 기자

본조계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본조계종(종정 회암)은 1월 10일 서울 w컨벤션센터에서 2011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회의장 대오 스님을 비롯한 종단 임원진 및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영 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금동대탑 삼성 소유 확정

국보 제213호 금동대탑의 소유권자가 삼성문화재단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 8일 "조계종 개태사가 국보 제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개태사는 2009년 6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이 1934년 개태사가 중창된 이후인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며 반환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동섭 기자

"템플스테이로 한국문화 체험 감동적"

주한 스페인 대사,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참여



펠릭스 발데스 주한 스페인 대사가 묘각사에서 타종을 체험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스페인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불교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한 스페인대사 펠릭스 발데스가 1월 8일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펠릭스 대사는 1박 2일 동안 다른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108배, 염주 만들기, 타종, 예불, 참선, 산행, 공양, 다도 등 다양한 사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템플스테이는 OECD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았으며,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회원국 대사들이 다녀간 뒤, 한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다.

낙산 묘각사 주지 홍파 스님은 "펠릭스 대사의 템플스테이 참여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월부터 외국인들의 예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 올해는 15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묘각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더 보완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불교계 사회복지 취업 정보

복 지 관	모집분야	모집기간	연락처
몰운대 복지관	언어치료사	채용시	051-264-9033
매화복지관	가족복지팀장, 초등학교사회복지사	1.22일 까지	031-393-3677
안양시니어클럽	산후대체인력	채용시	031-455-0558
안양노인복지관 병설 장기요양센터	간호사	채용시	031-455-0651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1.28일 까지	055-381-2005

재가자 하안거 봄산철 정진대중 모집
삼매체험 禪수련회
체계적 공부 지도
단식·참선 단기출가
다이어트 1일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대학생·일반
*수 련 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1월 21일 ~ 25일
·2월 18일 ~ 22일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고혈압·성인병·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아토피·생리관계·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 인 선 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영어실력보다 신심있어야 국제포교사”

경남 · 북 지역 최초 부부 국제포교사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렙니다.”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최초로 부부 국제포교사가 탄생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제15기 윤태환(59, 법명 선덕), 제14기 이순득(56, 법명 자재) 부부이다. 두 사람을 국제포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보시의 원력이었다.

아내 이순득 씨는 “통도사 적멸도량회에서 사찰안내를 하면서, 주는 이와 받는 이, 그리고 보시물의 청정함이라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을 경험할 때 더없이 기뻤다”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안내해주고 싶어 국제포교사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남편 윤태환 씨는 “홍법사의 국제부 행사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담그기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던 외국인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고, 선배 국제포교사인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국제포교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홍법사에서 진행된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2009년 제14기, 2010년 15기에 아내와 남편이 차례로 합격했다. 남편 윤태환 씨는 “선배인 아내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위주의 족집게 강의도 한 몫 했다”고 귀띔했다.

부부는 국제포교사가 되면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공부에 전념했지만, 합격한 후 생각처럼 포교 전선에 뛰어들 수는 없었다. 시험은 포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일 뿐, 세상에 나서기 위한 자신만의 준비과정이 남아있었다.

아내 이순득 씨는 “남들이 만들어 준 안내자료는 결코 온전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며 “사찰안내부터 불교문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등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남들 앞에 설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 윤태환 씨도 “솔직히 국제포교사 고시 합격과 동시에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장에 서보니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포교 활동 중인 청소년 · 어린이 등 대상이 무궁무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초석을 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국제포교사를 꿈꾸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불자들도 적지 않다. 윤 씨 부부는 합격비결로 신심과 영어를 꼽았다. 부부는 “필기시험이 온통 영어인데다 신행생활과 불교지식을 묻고 답하는 영어인터뷰까지 다단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잘해야 한다”며 “지식보다 전제돼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심어린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불심의 도시 부산, 수행과 전법 대중결사”

조계종 부산연합회 발기인대회 성료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이하 연합회)는 1월 11일 오후 4시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성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본 연합회는 ‘수행과 전법’의 기치를 내걸고, 조계종도들이 수행과 전법,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지역사회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도 200여 명, 재가불자 100여 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등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수불 스님은 “오늘날의 불교는 사회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 속에서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 부산권역에 거주하는 종도들의 수행과 전법, 그리고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부산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심산스님(홍법사 주지, 동련 이사장),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등 10인의 스님들은 현재 부산 교계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연합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대회에서 2011년 주요 사업으로 △4월 수행과 전법을 위한 결집대회를 통한 포교 역량 강화 △조계종도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개최해 성도재일의 재인식과 수행 · 전법 환경의 조성 △기존 부산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 및 팔관회 행사의 적극 동참 등 총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불교문화 창달을 위한 학술연구 및 불교문화사업,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장학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자립해야 산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성도절 법회서

대구 불교계가 민족문화 수호와 정법실현을 결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열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은 법어를 통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종교편향적 정책에 반대하며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립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불자들은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정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고종 대구교구 종무원장 청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폄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경고하며 만인류가 화합과 해탈의 길에 들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조계종이 정부를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족문화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정부정책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불교계 스스로 민족문화 수호의 의지를 다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lifearpist@empal.com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열었다.

전북 불교방송 개국 원년으로

금산사, 신묘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사회갈등 해소에 노력해 달라”

금산사 본 · 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신묘년 새해를 맞아 포부와 원력을 세워 보살행을 다짐하고 전북지역 불교 중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1월 9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등 50여 본 · 말사 스님과 김백호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계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몰지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제하고 “전통문화유산은 어느 특정계층만의 소유가 아닌 우리민족 모두의 것이다. 정부 여당과 불교계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대 · 계층간의 갈등 해소에 불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는 1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전북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방송국의 개국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2011년은 화엄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교육과 금산사 복지원의 사회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항일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사회통합과 한국학 진흥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민세상’을 수상한 월주 스님의 원력과 공로를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불교문화, 알아야 지킨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신라문화재 답사

예비 불교 어린이 지도자들이 불교 문화재 감시에 나섰다.

동련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예비 지도자들은 1월 8~9일 문경 김용사, 예천 용문사, 의성 고운사, 구미 도리사, 군위 제2석굴암, 칠곡 송림사, 경산 선본사 갓바위 등 경북 내 7곳의 사찰을 답사했다.

예비 교사들은 답사에서 법당 명칭, 사천왕의 표기 등을 학습하고, 잘못 표기된 부분,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번 답사는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들이 전각의 이름, 사천왕의 명칭, 무분별한 사리탑과 적멸보궁의 남발, 천년고찰의 불사로 인한 부조화 등을 바르게 알아 교사들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공수부대 장병들도 반한 선원사 자장면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군 사기가 위축된 것을 우려해 지역 군부대를 방문, 자장면을 공양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선원사 자원봉사단(단장 최인술)은 1월 9일 폭설이 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금마면의 제7공수여단 호국 천마사를 방문해 100여 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선원사는 정기적으로 임실 제6탄약창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지난 연말 육군 35사단을 비롯해 육군 부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군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한바 있다.

운천 스님은 “거리가 멀어 자주 오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다”며 “공수부대장병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어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원사는 절에서 직접 만든 돼지감자차의 판매수익을 통해 무료급식소등에서 자장면 봉사를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1학년도
藏山佛寺靑靈
청암사승가대학·율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교육원 교과목개편안 반영

청암사율원
- 모집인원 : O명
- 입방자격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11년 비구니계 수지 예정자.
- 전 형 : 서류전형, 면접(불교교리)
- 서 류 :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사본,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 사진 4X5 2매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청암사승가대학
- 모집인원 : OO명 / 편입생 : O명
- 서 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승려증사본, 은사스님추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3X4 4매
- 준 비 물 : 만의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5시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8시

청암사승가대학·율원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의 [승가교육개선안] 인가신청에 관계없이 기존의 교육기관으로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특성있는 전통강원 “청암사”로 오십시오.

청암사승가대학장·율원장 의정거현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청암사승가대학·율원 문의 054) 439-9511, 439-9313 / www.chungamsa.org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종 정 석인왕

원로원 석법수. 석법성. 석연화. 석묘수 석범오. 석관조. 석보성. 석능엄

총무원장 석 명 안

총무부장 석호봉 재무부장 석일연 교무부장 석법성
포교부장 석도혜 교육부장 석법혜 호법부장 석보성

서울경기교구 석혜안 강원교구 석법인 충남교구 석인관 충북교구 석해광
경북교구 석선법 경남교구 석월명 전남교구 석선덕 전북교구 석혜광

비영리법인 여래구도봉사단 단장 혜안
무료급식소 22년 (주6일)
해외절 : 미얀마 파간 탐민사 .
스리랑카 앨피스 사원 . 대회벨라 사원 . 파나두라 대학

총 무 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금강 대약사사 / 전화 043)731-2261
성남본산 약사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7-2 약사사 / 전화 031)734-3205 팩스 031)735-3374

사람과 사회구조 동시에 변화해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사회학' 펴내



사회 각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이 불교계 내에서 불교사회학이라는 분야로 개념화 된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 최초의 불교사회학 연구서가 출간됐다.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가 펴낸 불교사회학 개론서 〈불교사회학〉(박종철출판사 刊)이 그 것이다.

"기존 종교사회학계는 서구의 경험, 가톨릭에 기반한 종교사회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종교사회학 교재를 사용해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학 교재는 한 권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불교사회학〉은 유승무 교수가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여 년간 불교사회학 분야를 개척 온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유 교수는 책 출간으로 불교사회학이라는 연구영역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유승무 교수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강의를 시작하며 첫 강의로 '불교사회학'을 맡았지만 교재가 없어 가톨릭 신부가 쓴 종교사회학 교재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승무 교수는 승가대 강의를 비롯해 불교계 사회학 강연에는 먼저 교재집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막스베버, 베라, 칼 마르크스 등의 사회학 이론가들의 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수집해 연구를 시작했다.

서양 종교사회학은 베버, 벨라, 기어츠 등처럼 종교를 신념체계로 실체화하거나, 뒤르켐이나 엘리아스처럼 실체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었다. 또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처럼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실체화하거나, 버거처럼 종교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한다.

유승무 교수는 서양 종교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교의 '연기법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유 교수는 책에서 기존 종교사회학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4~5장에서 진행되는 베버의 대승불교론과 벨라의 도쿠가와 종교 등의 연구, 제6장의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의 관계가 그 것이다. 제7장에서는 참여불교 흐름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제8장에서 저자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과 사회구조가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화엄철학의 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를 설명하며 상즉상입이라는 총체성을 강조했다. 유승무 교수는 "불교 안의 상호동일성 원리이자 상호침투성 원리인 '상즉상입(相即相入)'으로 사회구조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교수는 〈또 하나의 한국사회〉와 〈한국불교의 사회학적 이해〉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들은 불교의 사회작용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것들이다. 불교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유 교수의 뜻이다.

유 교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들을 밝히는 작업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노덕현 기자

대장경 홀로그램으로 만난다

문화재청, 2011년 사업계획… 문화재119 운영도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문화재청이 대장경 홀로그램 제작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1년 국외 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홀로그램 제작, 문화재 훼손 신고전화(문화재 119) 운영 등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11년 12월을 예정해 홀로그램으로 제작되는 문화재 중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은 대장경의 우수성과 정교함을 대중들이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4월 경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20억 원을 기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세계유산 관련 문화재보호법 확대 개정안을 마련하며 전문가 회의도 개최한다.

문화재 훼손 신고전화 '문화재 119'를 운영해 긴급보수사업을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보' 제57집 원고 모집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2월 28일에 〈불교학보〉 제57집을 발간한다. 〈불교학보〉는 1963년 창간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 매년 3회 발간되고 있다.

이번 제57집은 불교학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로 원고 마감은 1월 20일까지다. 분량은 원고지 120매 내외(각주분량 포함)로 한글요약은 500자 내외, 영문요약은 A4용지 1매 이내다. (02) 2260-3768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사학'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현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가 간행하는 〈불교미술사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불교미술사학회는 국내외 불교미술사와 관련한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보존수복 전문가 500여 명의 모임으로 2003년 10월 17일 창립됐다.

현근 스님은 "불교미술사학의 쾌거로 향후 불교미술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육조 혜능 학술대회 성료



제1회 육조 혜능 학술대회가 구랍 29일 충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방장 석연화) 주최로 봉행됐다.

김부천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스님, (사)한국화쟁회 이사장 정암 스님, 대한불교 총남종청암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석연화 방장의 개회사에 이어진 주제발제에서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육조단경과 혜능의 선사상'을 이덕진 창원 전문대 교수는 '혜능의 선법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격변의 소용돌이 속 19人 승려들의 삶

김영진 인하대 연구교수, '근대 중국의 고승' 펴내

19~20세기 중국은 격변의 시대였다. 중국은 불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편전쟁, 청일전쟁, 신해혁명, 군벌의 난립, 5·4 운동, 북벌전쟁, 중일전쟁, 국공내전, 중국 공산화, 대약진 운동 등 많은 전쟁과 혁명들을 겪어야 했다. 민초들의 삶 역시 고단하고 각박하기만 했다.

1000년을 이어온 중국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위기는 찾아왔다. 스님들은 70만 명에 달했지만, 중국 불교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웅크리고 있는 법이다. 세상을 외면한 채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반대로 봉건적 습속에 젖어있던 불교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개혁적인 스님들도 있었다.

김영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저서 〈근대 중국의 고승〉에서 근대중국에서 활동한 19명의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선승과 수행의 부활 ▷승려교육과 불교개혁 ▷종파불교의 계승과 학승 ▷밀교열과 티베트 불교 ▷정토 신앙과 염불법문 등 5가지 주제로 나눠 이들을 삶을 이야기했다.

중국 천태종의 부활을 맛보게 했던 디센스님(諦閑, 1858~1932)은 선승들을 모아 선방을 열고, 무문관 수행을 했으며, 불교혁신의 선봉자 였던 타이쉬 스님(太虛, 1890~1947)은 무창불학원(武昌佛學院)과 민남불학원(閩南佛學院), 한장교리원(漢藏教理院) 등 교육기관을 세워 승려 교육과 불교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청대에 이르러 거의 명맥이 단절됐던 밀교는 당시 일본불교의 소개와 밀교승의 도래를 통해 다시 관심이 고조됐다. 몇몇 스님은 일본에 유학해 밀교의 계를 받아와 중국에 밀교를 부흥시켰다. 밀교의 부흥은 다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티베트 유학승이 출현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파쭌 스님(法尊, 1902~1980)이다. 스님은 중국에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티베트 불전을 소개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도 인광 스님(印光, 1861~1940)은 수십 년간 염불수행을 통해 중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위안잉 스님(圓瑛, 1878~1953)은 참선과 염불수행을 결합해 사람들을 수행을 길로 이끌었다.

김영진 교수는 "붓다의 이야기만으로 불교를 구성할 수는 없다. 우리가 비록 끙끙거리며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까닭은 수많은 불교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중국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승들 중 19명의 고승들이 중국 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고승들을 통해 근대 불교를 다시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불교+사상의학

불문연, 19日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월 19일 동국대 학림관 세미나실에서 '치유를 위한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의 융합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2010년 9월부터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최종 결집 돼 발표될 예정이다.

불교문화연구원 융합연구는 불교의 '마음챙김(mindfulness)'과 한의학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융합해 불교학과 의학의 다양한 소통과 심신치유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팀(연구책임자: 박성식, 대학원 한의과 교수)에는 불교학 7명, 한의학 3명의 교수들로 구성돼있으며 '불교와 의학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차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圓潭書藝大賞展

전국공모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 큰스님의 추모일(음력 2월 11일)을 맞이하여, 탈속한 선필과 선사상을 기리며 아울러 역량있는 신인작가에게 작품활동 지원의 성격을 담아, 제1회 원담 서예상을 제정, 공모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시장소 | 수덕사 선 미술관

- 공모부문 _ 서예(한글, 한문)
- 전시기간 _ 2011년 **3월 15일 ~ 4월 15일**
- 시 상 식 _ 2011년 **3월 15일 오전 10시**
- 원서교부 _ 2011년 1월 5일~2월 1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com)

주 최 | 수덕사 선 미술관
주 관 | 원담 서예상 운영위원회
후 원 | 덕숭총림 수덕사

작품접수 2011년 2월 15일 까지
접 수 처 수덕사 선 미술관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출 품 수 1점(단, 출품료는 없음)
작품규격 화선지 1/2절 (가로는 배접하여 접수하고, 세로는 족자로 제작하여 접수)
심사 및 발표 심사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저명한 작가와 명사로 하며 발표는 **2월 28일**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한다.
시상 및 시상금
▶ 대 상 1명 : 5백만원
▶ 최우수상 1명 : 3백만원
▶ 우 수 상 2명 : 각 1백만원(2백만원)
▶ 특선 및 입선 : 00명

- 대상과 최우수상 작품은 본 주최 측에 귀속되며 수덕사 선 미술관에 소장한다.
※ 단,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또는 시상전에 출석하여 휘호할 수도 있다.

■ **특 선** _ 본 서예상 공모 입상 작품은 1개월간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전시하며 도록을 제작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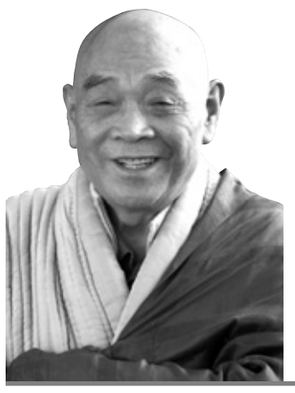
■ **반 출** _ 출품한 모든 작품의 권리는 수덕사 선 미술관측에 귀속된다. 단, 반환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 **기 타** _ 본 서예상 공모는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작품활동 지원책으로 재정 후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수덕사 선 미술관 사무국(041-338-9900)으로 문의 바람

※ 圓潭 은 圓潭 큰스님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①



한국처럼 보살(菩薩)이 많은 나라도 없다. 한국 불교에서는 여신자(女信者)들을 모두 보살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살은 많으면서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왜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생기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보살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이후 1월 6~27일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명사 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스님이 주도하는 보살사상 실천의 한 방법이다. 첫 행사인 1월 6일에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보살사상의 이념과 실천방향' 을 주제로 법문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실천 이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보살사상의 이념과 실천방향' 법문

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에 다생 다겁의 전생에 수없이 선업을 닦으셨습니다.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달리 이룬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간 동안 선업을 닦은 인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선업을 닦았을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름을 바로 '보살' 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菩薩, bodhisattva)로 표현합니다.

보살은 다름이 아니라 성불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욕보살에서부터 수없는 보살의 수행을 거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리 下化衆生)'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으로 최고의 이상적인 삶을 위해 수행 정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살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부처님 입멸 후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최고의 길을 발견한 불교도들이 처음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후 많은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삶을 거울로 삼아 모범으로서 모방하는 보살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길고 긴 과거의 삶을 통해 부처님으로서 실천해 온 자기 수행 및 이타행 그리고 이를 원인으로 얻게 된 깨달음이라는 결과 또한 모든 중생들의 구제에 바친 부처님의 삶에 많은 불교도들은 공감했습니다.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종교적 열정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대승불교라는 위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내게 했습니다.

보살사상에 불교 미래 달려

서력기원을 전후로 인도에서 발생한 대승불교는 그 후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 및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으로 폭 넓게 전파되며 많은 불교도들의 삶의 지표가 돼 왔습니다. 하지만 2000여 년의 세월 속에 대승 흥기 시대 찬란히 빛났던 보살사상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조금씩 빛을 잃어 갔고, 지금에 와서는 그 위대한 인간상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땅에는 불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진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자들이 자신의 수행에만 관심이 있었지 세상살이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주변과 소통하며 올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생활에서 봅시다. 직원들은 사장을 적대시하면서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되려면 주인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주인으로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든 처한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적이고 사장의 적이 직원이면 어떤 조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국사회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다운 역할을 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시키는데 나서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인 가비라국에 전쟁이 나니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놔 두라' 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까요.

보살사상의 실천의 세가지

정신(正信)= 올바른 믿음
정해(正解)= 올바른 인식
정행(正行)= 올바른 실천

목련존자가 쳐들어 오는 병력을 막으려면 이쪽에서도 병력을 끌고가야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호간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서 나라를 지키면 그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고 갈등을 화합으로 푸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달마 대사를 통해 중국으로 전래됩니다. 달마 대사는 불교는 자기 위주의 수행법을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위주 수행법이 아닌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뜻을 품습니다.

달마 대사가 가지고 온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 불교는 보살 사상을 가르치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살사상 실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살사상 실천운동은 우리의 모든 의식과 업을 바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성과 더불어 한량없는 자비와 이타적 관심으로 일체중생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보살의 정신은 오늘날 갖가지 이기주의에 젖어있는 우리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진화시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유정 무정들이 직면한 갖가지 문제와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2500여 년 전 방황하는 인도사회의 중생들을 구제한 부처님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아 보살도를 실천해 온 많은 불교도들을 위한 삶을 돌아봐 참된 길을 찾아 실천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살사상 실천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믿음(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올바른 종교관입니다. 종교관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서약서를 쓰고 부모와 자식의 재산을 모두 종교재단에 헌납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극단적인 방법도 서슴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종교관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종교관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신앙으로 종교를 믿지 말고 교리 공부를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궁금하고 기독교가 궁금하면 바로 믿지 말고 그 교리와 경전을 공부합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아! 이 종교는 나와 맞는구나, 내 삶을 보다 올바르게 이끌 수 있구나' 생각이 들 때 그 종교를 믿으십시오.

종교관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종교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인식(정해)입니다.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네에 살아도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인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식에게서 바른 견해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에 밝은 선지식에게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법률에 밝은 선지식에게서 준법정신을 배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관이 확실히 정립돼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업에 의해 윤회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개인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회도 업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 업에 의해 역사가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즉 역사에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피해를 봐 왔습니다.

공교롭게 최근 중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실천(정행)이 필요합니다. 보살운동의 핵심이 바로 올바른 실천에 있습니다.

인식이 바르면 실천은 그 실천이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자심통천이라고 합니다. 자비심은 하늘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정업 정명을 실천해 자비심으로 승화해 사해가 한집이 되고 법계가 일신이 돼 온 세상이 모두 청정국토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운동은 함께 하는 성불로 이어지게 되고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신입, 편입(학점은행제)생 모집요강

Ⅰ. 주의사항

1. 불교전문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 실시교육기관이다.
2. 제출 및 전형료는 일체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3. 부정및 불법행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및 입학을 취소한다.
4. 합격통지 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5. 입학원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 입학원서 접수시 전형료를 소정의 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 된다.
6.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절차에 따른다.

Ⅱ. 제출서류

학 과	제 출 서 류	제 출 방 법
신편입 공 통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본 1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2학년 편입 경우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1부(단 영산재보존회에서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6, 반명함판 사진 4부 7.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1. 본교 교학처 및 우편접수 2. 우편접수시 인터넷에서 교부한 원서에 사진 부착후 여타의 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우)120-150 서울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Ⅲ. 응시자격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출신자

2. 신편입 전체공통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시~7시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7시	마일운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 1시~7시	김현수	30
불교의식 (이론Ⅰ)	범불교의식	화	오후 1시~4시	심만춘	30
불교교양 (이론Ⅱ)	불교교양	화	오후 4시~7시	한활안	30
불교의식실기 (실기)	시련 대령 관욕	월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 단 불교의식 실기과정은 상주권공 수료자 이상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②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③ 주민등본 1부 ④반명함판 사진 4부 ⑤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⑥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3. 학점은행제

학점 은행제 모집 (2011학년도)							
2010학년도 1학기 과정				2010학년도 2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인 원	과 목	교수	요일	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범패실습Ⅱ	조인각	월	30
사물실습	이기봉	월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심만춘	화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불교학개론	한활안	화	30
				화청과희심곡별곡	이기봉	월	30

· 지원자격 : ① 고등학력소지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② 타기관 학점은행제 수강자. ③ 타 전공학위를 원하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4. 편입과정

· 지원자격 : 동방불교대학 범패학과 졸업자
· 제출서류 : ①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 또는 옥천범음대학 상주권공 수료자에 한함) ②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Ⅳ. 원서전형일정

① 원서교부 : **2011년 1월 3일(월) ~ 2월 11일(금)**
②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③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1년 3월 7일 오후 1시**
④ 추가모집 : 출석일수 1/3 미만시기
⑤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원
⑥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2501-04-204671 / 예금주 이수길
⑦ 유의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시 불합격 처리 됨. 실명입금원칙으로 하며, 타인 명 입금시 반드시 전화요망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Ⅴ.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Ⅵ. 특 전

① 재학생중 4년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함.
②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 품수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 학중 출가자는 제외.
③ 4년 과정을 수료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④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선발을 부여하고 각종장학금 혜택을 부여 한다.

Ⅶ. 입학문의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토 · 일은 휴무)

옥 천 범 음 대 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강북구 사암연합회는 1월 10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왼쪽부터) 박경수 강북구청장, 사암연합회 회장 수암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너와 나 함께 부처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가리"



강북구 사암연합회 성도재일법회 현장

"그대 앞에 있는 내가 때론 작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에선 누굴 사랑 하냐고 물으면 그대라고 말할 나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 가슴 아픈 날이 많았는데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난 네 손을 놓지 않겠다.♬~"

애정표현이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10일 서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668석이나 되는 대강당 좌석은 만원이었다. 공연을 보려면 서서 봐야 함에도 관객들의 눈은 무대로 집중됐다.

불자가수 김종환의 열창에 관객이 빠져들었다.

"제 노래 '사랑이여 영원히'라는 곡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 중 2인칭인 '그대'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릅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고자하는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암, 화계사 주지)는 특별한 성도재일 법회를 마련했다. 강북 사찰들은 성도재일(음력 12.8)을 맞아 문화공연 및 자비나눔으로 성도재일을 축하했다. 그 의미를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행사는 가수 김종환 씨의 공연에 앞서 서울도선사, 화계사, 본원정사 합창단 공연, 불자 가수 고경희 포교사, 문명하 국제포교사, 관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내용은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와 춤이었다. 여느 법회보다 참가자들의 호응은 높았다. 성도재일의 의미를 전하기에 효과적인 행사였다.

사암연합회는 문화공연에 이어 성도재일 법회, 자비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수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날보다 더 뜻 깊게 보내야 하는 날"이라며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원정사 원성 스님은 "성불은 내 마음을 깨치는 것과 함께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비롯된다. 나눔은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법문에서 "예불문에서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라고 하는 것이 곧 나와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 뜻이다"며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성도재일을 맞아 각 가정과 사찰에서 석가모니 정근을 하며 불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는 문화행사에 비해 짧게 마무리됐다. 이날 밤 각 사찰에서는 철야정진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한 탓이었다.

부처님 깨달음 이룬 뜻 함께 나누려
소외계층 200가정에 쌀과 현금 등 지원

이어 소외계층을 위해 200가정에 각 쌀 20kg과 현금 5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도선사, 화계사, 삼성암, 보광사, 본원정사, 송주사, 서원사, 경천사, 보현사, 미아사, 강북구청불회 정토회, 향운사 등 강북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이 동참했다. 행사에는 수암 스님, 혜자 스님, 도갑 스님, 본원정사 원성 스님, 송주사 은우 스님, 경천사 혜오 스님, 미아사 일주 스님, 향운사 명조 · 지성 스님, 보현사에 묘안 스님, 몽골법당 바트보양 스님, 다시카 스님, 박겸수 강북 구청장, 김정중 서울시의원, 이백균 강북구의원 등 7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올해 성도재일 각 사찰에서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11일 오전 9시 타종과 함께 관련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정부와 개신교계의 불교폄훼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상영했다. 조계종 산하 전국 3000여 본말사에서 정부여당을 규탄 동시법회가 봉행됐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지금을 '하수상한' 시대라며 안타까워했다. 문화공연으로 펼치던 연합법회와는 달리 엄중했다. 수암 스님은 "개신교의 불교 폄훼 동영상을 보고 불자들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관무용단과 합창단의 공연 모습. 강북구 사암연합회는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10일 철야정진, 집중수행 등 수행의 문화공연으로 성도재일의 뜻을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새겼다.

불교 4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출가절(음력 2.8), 열반절(음력 2.15)과 함께 성도절(음력 12.8)은 불교 4대 기념일이다.

성도절에는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 등으로 성도의 뜻을 기념하고, 고타마 싯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뜻을 되새기며 용맹정진한다.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고 고행만이 수행의 바른 길 아님을 알아 용맹정진을 한지 7일 만에 새벽의 샛별을 보는 순간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바른 도를 이뤘다는 뜻의 성도재일에는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열반을 얻어 일체대중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의미깊은 날이다.

출가절에는 출가의 참뜻을 되새기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참회 의식을 넣어 108참회를 한다. '발심의 날'로 정하고 오후불식을 하는 불자도 있다. 출가절에 불자들은 부처님을 본받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열반절은 부처님의 열반을 기념하기 위해 열반재를 연다. 40여 년간 중생교화를 하다가 80세에 해탈한다. 부처님 열반에 대한 설 중 우리나라는 〈대반열반경〉의 2월 15일 설을 쓴다. 〈대당서역기〉는 열반일을 기념해 부처님의 열반상전에 무차대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탄신일로 기원은 〈불소행찬(佛所行讚)〉에는 4월 8일로 돼 있고, 〈유행경(遊行經)〉에는 2월 8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을 채택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약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④ 약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World View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세요”

-미얀마 난민 수용소를 가다(하)

글=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후원=대한불교진흥원/다음카페 ‘히말라야의 꿈’



태국 메솟의 미얀마 어린이. 현재 국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 곳을 찾는 고아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샤프란 혁명, 소리 없는 아우성

샤프란(saffron). 한국의 주부들에게 ‘샤프란’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빨래할 때 쓰는 섬유유연제의 이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러 ‘샤프란’이 식물의 이름이란 것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얀마에서는 샤프란이라고 하면, 스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스님들의 승복이 샤프란의 선황색(鮮黃色)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그보다 더 진한색이지만. 2007년 9월 미얀마의 스님들이 군부독재의 인권탄압과 연료보조금제도 폐지 등에 항거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수많은 스님들이 살상을 당하고 구금되거나 국외로 망명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샤프란 혁명’이라고 합니다.

샤프란 혁명은 미얀마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인 스님들이 대규모로 떨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얀마 불교계가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포 캠프에는 7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마다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여 명 이상의 스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사는 스님은 모두 130여 명입니다. 7개의 사원에서 생활 하는 스님들 가운데는 2007년 ‘샤프란 혁명’에 시위를 주도하며 적극 가담했던 분도 있고 승단에 대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캠프로 들어 온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포교 위한 학교가 필요해요

캠프의 서쪽 끝, 미얀마 국경으로 통하는 길옆에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절의 이름은 ‘붓다 타탄나 예따 샤프란(Buddha Tha Tana Yeiktha Saffron)’입니다. 올해 77세인 우 뚜리아(U Thuriya) 노스님과 57세인 우 오바다(U Aw Bar Tha) 스님이 10여 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곳입니다. 스님들의 이름 앞에 붙는 우(U)자는 존칭입니다.

사원으로 찾아갑니다. 캠프의 사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은 뿔테안경을 쓴 뚜리아 노스님이 영어를 하여 대화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캠프를 취재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이곳의 사람들과 정황을 한국의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이 절의 지도자(주지)인 오바다 스님입니다.”

오바다 스님은 인상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 구릿빛 얼굴에서 풍기는 강한 이미지가 샤프란 혁명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닮았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이 된 지 17년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원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저러하니 우리도 감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뭔가 하려해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오히려 불자들이 조금씩 협조를 해서 이렇게 사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난민촌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그 원력이 이뤄지도록,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보태도록 저희가 나서보겠습니다. 오바다 스님께서는 언제 이곳에 오셨는지요?”

스님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허공을 응시합니다. 법당에 침묵이 흐르는 짧은 시간, 오바다 스님이 가사를 고쳐 입으며 앉음새를 꼿꼿이 합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해 9월 5일부터 미얀마서는 많은 스님들이 시위에 참가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당시 150여 스님이 총을 맞고 군화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고 무수한 스님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과 인근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스님도 그 시위에 동참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스님은 머리를 숙여 뒤쪽을 보여 주었습니다. 깊은 상처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는 군인들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찍어서 생긴 겁니다. 이 충격으로 지금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안목에서 볼 때 스님들의 시위는 군사정부가 너무나 많은 국민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났고 스님들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님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행사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얀마 국민들도 모두가 울분을 참지 못했지요.”

오바다 스님은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어서인지 그때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님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이란 2007년 샤프란 혁명의 기폭제가 된 ‘포쿠코 승려 폭행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해 9월 5일 정부의 연료보조금 제도 폐지 등에 항의하는 평화시위대를 군정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스님들도 상당수 시위에 가담했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3명의 스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폭행과 조롱을 당했는데, 소총개머리판으로 무수히 맞았고 승복을 다 벗긴 채로 풀려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었던 스님에 대한 군정의 폭행과 모욕은 승단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시위에 뛰어들었고, 샤프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에 사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병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학교를 통해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위생도 점검하고 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이 사원 옆의 부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이미 2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 캠프에 사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았기 때문에 학교 짓는 일에는 다시 시주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주하는 것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앉은 바로 뒤에 사각형 아크릴 불전함이 하나 놓여 있고 그 바닥에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20달러 지폐 한 장을 접어서 넣고 합장을 합니다. 스님들의 원력이 이루어지시길….

#새생명학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메솟(Mae Sot)은 태국의 작은 도시입니다. 태국 전체 영토의 중앙에서 서북부 미얀마와의 국경 쪽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800Km가 넘는 거리이고 버스로 8시간 달려가면 도착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강원도 양구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는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절반이 미얀마에서 넘어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얀마 사람이란 시민권을 얻은 경우이고, 난민으로 유입된 미얀마 인구는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고아원에 수용되어 사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통째로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취업하여 숨죽이며 사는 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메솟의 변두리에 새생명학교(New Blood School)가 있습니다. 이름은 학교지만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은 아니고, 미얀마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 학교에는 고아들이 127명이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살에서 열두 살까지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얀마에서 고아가 되었거나 국경을 넘다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37명입니다. 학교 안에서 먹고 자는 고아 외에는 걷거나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데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도 50명이나 됩니다.

8년 전 학교를 설립해 숱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버텨 온 쇼우(Shaw) 교장은 아내와 함께 학교 안에서 생활하며 고아들을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그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을까요?

후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새생명학교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마당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과자상자와 돗자리, 이불, 콩기름, 세제, 칫솔, 치약, 세숫비누, 축구공, 등을 마당에 내려놓으니 아이들은 마냥 신나합니다.

쇼우 교장은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고 영봉 스님은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냐”고 거절하지만 결국 사진 몇 장을 남기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눈을 말똥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재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리며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 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 · 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 38,000원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융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밥이 하늘, 두 끼와 세 끼 간격이 아득한 곳

숙식 포함 매월 학교 운영비 300만원, 1만원이면 한아이 한달 살 수 있어


태국 메솟수용소의 미얀마 어린이들이 영봉 스님이 마련한 위문품 중 칫솔을 들어 보이고 있다.

거리며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칫솔을 하나씩 나눠주고 과자도 직접 손에 쥐어 줍니다. 그러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손에 쥐어주고 어깨나 얼굴을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봉 스님이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여 줍니다.

"이 편지는 한국의 충주라는 도시에 있는 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여러분을 위해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세성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학급에서 바자회를 열어 85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돈과 편지를 새생명학교에 보내 달라고 해 영봉 스님이 품에 넣어 온 것입니다. 함께 간 NLD(버마 민족민주동맹) 활동가 모우자 우(Moe Ja Woo)씨가 세성초등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읽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에게, 안녕? 우린 작년에 세성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바자회를 통해 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어. 위 사진은 가을에 은행나무 밑에서 찍은 사진이야. 노란은행나무 잎이 예쁘지? 우리도 너희의 계절과 언어가 궁금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우린 사는 곳은 달라도 같은 친구야. 열심히 커서 언제 한 번 만나자~ 세성초 6학년 친구들이."

나눔이란 것, 자칫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있는 것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것으로 나눔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이고 나눔을 기뻐하는 마음,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마음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나눔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풍부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 두 학급 나눠 앉아 수업

"최근 1년 사이에 밀려드는 고아들 때문에 암담하기 짝이 없지만 그 누구도 내칠 수 없어 들어오는 대로 받아 들이다보니 그 수가 두 배를 넘었고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우 교장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쇼우 교장은 태국인 교사 1명과 미얀마인 교사 8명이 새생명학교를 이끌고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YWCA 산하 '좋은 친구들(Good Frend Center)'이 지원해 주는데 1인당 2000바트(약 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점차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달 7만5000바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7만5000바트는 약 300만원, 2500달러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아들 127명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먹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이 300만원이라면, 한 아이에게 드는 교육과 숙식비용이 한 달에 1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쇼우 교장은 이 돈이 여의치 않아 늘 곤궁하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지원 외에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늘 살림살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심 넘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쇼우 교장은 늘 웃는 얼굴인데, 그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면 아이들이 불안해 할 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쇼우 교장이 가장 난감한 것은 아이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경지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탓에 고아들이 늘어나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려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잘 곳이 좁아도 좁은 대로 살아야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살아야 할 뿐입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소리 같지만 그게 최선의 대책인 것이 이 학교와 메솟 인근 국경의 현실입니다.

"학교부지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처음엔 다른 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너무 좁고 불편해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구역은 개인 소유지입니다. 한 달에 1000바트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저 건너 운동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회라도 하려면 그 공터를 빌려서 써야 합니다. 여기는 난민수용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용료가 따라붙으니 더 힘든 겁니다."

학교의 면적은 대략 1700평 쯤인데 교실과 숙소로 쓰는 4개의 건물이 있고 공터가 있고 채소밭이 있습니다. 채소밭에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교장 내외와 교사들은 채소밭에 지극한 정성을 쏟습니다. 씨 뿌려 거둘 수 있는 채소가 아니면 부식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종교는 없겠군요."

"아닙니다. 모두가 불교신자들입니다. 미얀마 국민의 90%가 불자입니다.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렌족이 의외로 기독교를 많이 신봉하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불자라고 말합니다. 두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이들은 매일 아침 경전을 독송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에 따른 일과일 뿐이지, 종교적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이 학교를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불교관련 국가나 단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으로 작용하리란 생각입니다.


총주 세성초교 학생들이 미얀마 친구들을 돕기 위해 모은 85달러와 편지.


영봉 스님(가운데)이 새생명학교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하루 두 끼와 세 끼의 아득한 간격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부엌 앞으로 몰려갑니다. 따라 가 보니 이미 밥솥과 국솥이 나와 있고 쇼우 교장의 아내와 교사들이 식사를 배식합니다. 그 앞에 일렬로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은 접시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밥을 받고 그 위에 야채를 넣어 끓인 국을 끼얹어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 손으로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물어 볼 수 없어 교사에게 물어 봅니다.

"메뉴는 자주 바뀌나요?"

교사의 눈빛이 묘합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배식할 형편이 아니라서 미안한 표정 같기도 하고, 이곳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핀잔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학교의 아이들은 거의 모든 끼니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먹는 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최근부터라고 하는데, 고아들이 자꾸만 늘어나면 대책 없이 두 끼로 줄여야 할지 모른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입니다.

밥이 하늘이라고 했던가요?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는 이제 추억의 고개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밥이 하늘이고 두 끼와 세 끼의 간격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밥을 참 맛나게 먹습니다. 이방인은 밥 한 접시를 받아들고 숟가락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아이들은 그야말로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 밥을 먹어치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은 좀 어두침침하지만 벽이 온전히 둘러쳐진 시멘트 블록 집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은 다르고 교실은 적어서 그런지 한 교실에서 두 학급이 공부를 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에 칠판이 있고 아이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앞뒤로 돌아 앉아 구구단을 외우고 산수를 배웁니다. 선생님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러고 보니 교실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소리가 합창처럼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채소밭의 채소들은 아이들의 주식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우리 일행에게 쇼우 교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 오신 편지에 대한 답글입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우 교장은 그 사이 어느 학생에게 편지를 쓰게 했나 봅니다. 태국어로 쓰고 다시 영어로 번역한 편지 한 장이 영봉 스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 친구들아. 너희들이 보내 준 85달러는 고맙게 잘 받았단다. 너희들의 고운 마음씨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는 새 생명 학교의 난민 학생들이야.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배워. 우리도 너희들을 만나길 바란단다. 너희들의 성금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너희가 언제 한 번 이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초대할게. 고마워."

아, 한국 충주의 어린이들과 태국 메솟의 미얀마 어린이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아이들은 마음으로 만났으니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이고, 그 인연이 언젠가는 반가운 만남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천태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0년 11월 22일 ~ 2011년 2월 18일 18시까지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면접 : 2011년 2월 20일(일) 14시	•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인 천 황룡사 : 032.567.2533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오 산 황덕사 : 031.373.2126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SMD LED전구(국산정품)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⑳

소참(小參)·조참(早參)·만참(晩參)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면 하는 소참법문



2005년 부산 범어사 설선대법회에서 조실 지유 스님이 법문하고 있는 모습.

상당법어 다음에는 소참(小參)·조참(早參. 朝參)·만참(晩參)·보설(普說) 등이 있다. 오늘은 소참·조참·만참에 대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상당법어가 정식 법문으로서 법당에서 행한다면 소참·조참·만참은 '작은 규모' 혹은 '약식(略式) 법문'으로서 청중이 많으면 법당에서 하고 적으면 방장에서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소참법문은 주지가 수시로 행하는 간략한 법문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법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했다. 어떤 격식도 없으며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한다.

소참·조참·만참 등은 상당법어와 같이 고칙이나 공안을 제창(提唱, 공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법문하는 것)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 공안과 관련된 선화(禪話), 또 경전의 구절을 강의하기도 한다. 상당법어보다는 쉽고 평이한 편이다. 편안한 형식을 통하여 상당법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당법어를 통해서는 정법안을 갖추고, 기타 소참·조참 등을 통해서는 선과 공안, 화두 참구, 수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지식 등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참과 조참, 만참의 성격과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관련 연구서와 청규를 참고해 보면 조참과 만참을 합하여 소참이라고 서술한 곳도 있고, 각각 다른 것으로 서술한 곳도 있다. 최법해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50쪽에는 "소참이 아침에 행해지면 신참(晨參, 早參)이며, 밤에 행해지면 만참(晩參)"이라고 하여, 조참과 만참을 통칭 소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선학대사전 편찬소에서 편찬한 〈선학대사전〉(大修館 발행) 소참항목에는 "기합원대중, 조참석취(其闔院大衆, 朝參夕聚, 선원의 모든 대중들은 아침에 참문하고 저녁에 모여 참문함)"라는 〈선문규식〉의 내용을 인용해 "당대(唐代)에는 수시로 하는 법문을 소참이라고 했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저녁법문인 만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참이 송대에 이르러 만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참과 만참을 통칭 소참이라고 한다는 말은 없다.

> 편안한 형식으로 상당법어 보완
>
> 선지식, 선화, 경전 구절 강의

한편 1338년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 주지장에는 별도로 만참과 소참 항목을 두어 설명하고 있고, 〈선림비용청규〉나 〈선림상기전〉에도 소참과 만참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본다면, 수시법문(隨時法門)인 소참과 아침 법문인 조참, 그리고 저녁 법문인 만참은 각각 따로 있었는데, 북송대에 이르러 소참은 만참으로 통폐합됐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참과 소참 법문을 구분할 때는 상당법어는 대참, 기타는 모두 소참법문으로 규정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고증해야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이 정도 고증에서 머물고자 한다.

주지가 수시로 격식없이 열어

소참은 말 그대로 '소략한 법문' '작은 규모의 법문'으로서 주지(방장)가 수시로 행하는 법문이다.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격식이 없이 하는 설법인데, 대중이 많으면 법당에서, 적으면 방장실이나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에서 했다. 약간의 격식을 갖추는 때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좌담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작무(作務, 보청, 울력) 중에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즉석 법문, 즉흥적인 법문으로서 청중이 어느 정도만 모여도 했던 것이 소참법문이다.

〈칙수백장청규〉 '주지' 장(章) 소참 항목에는 "소참법문을 하는 장소는 처음부터 정해진 곳이 없다. 대중이 많은지 적은지(多少)를 헤아려서 침당(寢堂, 방장, 주지실)에서 하기도 하고 법당에서 하기도 한다(小參, 初無定所, 看衆多少, 惑就寢堂, 惑就法堂)"라고 하여, 청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며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참법문도 후대에는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면서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자각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2권 소참장에는 "소참은 초야(初夜)에 종이 울리면 침당(寢堂, 방장, 주지실)에 자리를 마련한다. 지사(知事, 감원, 유나 등 6지사)와 대중들이 운집하며, 빈주(賓主, 법문을 듣는 대중과 주지)가 서로 묻고 답하는 것 등은 모두 조참과 같다"라고 하여, 시간은 초야 즉 저녁 7시에 했으며, 그 형식은 주지가 편안하게 설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중들이 의문 나는 점을 묻고(질문) 답하는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소참법문을 하는 시간도 주로 저녁 공양 후에 했다. 저녁 예불과 공양을 마친 다음에 했던 것은 시간적으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난 이때가 비교적 한가해서 선화(禪話)를 나누기에 적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장소도 거의 주지의 거실인 방장에서 한 것은, 방장이 주지로서는 편리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방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서 한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불교가 흥성했던 1000년 전 당말 송대의 방장은 매우 커서 조계사 대웅전에 버금갈 정도(5칸)였다.

특히 남송 때 5산 가운데 하나였던 경산사(주지는 대혜종고)와 천동사(주지는 굉지정각), 영은사, 아육왕사 같은 경우는 방장실이 전방장(前方丈)과 후방장(後方丈)으로 나누어져서 두 채나 되었다. 후방장은 용도가 주지의 거실, 침실이어서 크지 않으나, 전방장은 접견실 겸 소참법문 등을 하는 장소로서 매우 컸다(오산십찰도 참고. 물론 오늘날 중국 사찰의 방장은 크지 않다). 지금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임제종 대본산인 묘심사(妙心寺), 천룡사(天龍寺) 방장도 매우 커서 조계사 대웅전의 1.5배나 된다.

소참법문은 상당법어처럼 고칙이나 공안을 제창하기도 하고, 또는 선어록이나 경전의 한 단락을 강의하기도 하는데, 주로 선원 생활과 규칙, 법화(法話), 수행자의 자세, 행동거지 등 교훈적인 것들이 많다.

〈선원청규〉 2권 소참장에는 "(공안을) 제창(提唱, 제시, 설법)하며 그 밖에 위로는 지사와 두수로부터 아래로는 사미와 행자에 이르기까지, 무릇 대중 가운데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주의·훈계해 바로 잡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걸을 때는 팔을 흔들고 걸으면 안 된다. 합장할 때는 두 손을 합하여 가슴에 댄다. 잠 잘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잔다. 와구와 의복은 항상 단정히 해야 한다. 자기 자리가 아니면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라. 선당 안에 모여 한가하게 이야기 하지 말라. 세면하면서 침을 뱉거나 소리를 내지 말라" 등 행동거지와 관련된 것이 많다.

> 수행자 교육 방법으로 활용
>
> 송대에 와서 횟수 전례화

주지는 상당법어에서는 할 수 없는 소소한 것들을 모두 소참을 통하여 했는데, 이는 수행자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가훈(家訓)이나 또는 가교(家教, 가정 교육)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소참을 가훈(家訓) 또는 가교(家教)라고도 한다. 물론 수행자들도 소참을 통하여 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인격을 도야하고 대중생활의 규율과 예의 등을 다져 나간 것으로 본다.

소참은 송대에 와서는 그 명칭이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으로 바뀌어지고, 또 횟수도 매일 했던 것이 5일에 한 번(1달에 6회), 즉 3·8·13·18·23·28일로 정례화 되었다. 3·8일에만 했다고 하여 '3·8만참'이라고도 한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조참

조참(早參)은 아침 법문이다. 주지가 공양 후에 수행승들을 모아 놓고서 행하는 법문으로서, 대중들은 아침 공양이 끝나면 작무(作務, 보청, 울력) 즉 청소를 한다. 그런 다음 북을 치면 대중들은 조참 장소로 집합한다. 물론 전날 저녁에 다음 날 조참이 있음을 알리는 조참패(牌)를 법당과 방장 혹은 승당(僧堂, 禪堂)과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 등에 건다. 조참은 법문 겸 그날 대중들이 공지해야할 사항을 알리기도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법문이므로 주로 법당에서 한다. 그리고 상당법어가 있는 날에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후대에는 거의 상당법문에 버금가는 규모, 버금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조참은 곧 상당법어로 인식되었다.

만참, 수시로 열리던 소참의 정례화

만참은 저녁 법문으로서 당대(唐代)에 수시로 행해진 소참이 만참으로 정례화 된 것인데, 그렇다고 소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점심 공양 후에 큰방 즉 대중방인 중료에서 차를 마시면서 법문했던 것을 본다면 만참 외에 소참도 횟수는 줄었지만, 종종 있었다고 보여진다.

만참은 초저녁에 주지가 수행자들을 모아 놓고 행하는 법문이다. 만참은 어느 자료에는 포시(哺時, 오후 4시)에 했다고도 하고, 또 혼종(昏鐘, 6시 45분)이 울리면 했다고도 하고, 초야(初夜) 즉 저녁 7시에 했다고도 해서, 일정치 않다. 이런 차이는 소참이 만참으로 이전되는 과정, 그리고 법문 시간도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참(晩參)도 소참이나 조참처럼 고칙이나 공안 등을 제창하기도 하고 또 훌륭했던 선사들의 생애와 가르침, 선에 관한 이런 저런 고사(故事) 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총림의 여러 가지 불사와 관련된 일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소참과 아무 다름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상당법어는 반드시 들어야할 의무사항이지만 소참·조참·만참 등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듣고 안 듣고는 개인의 사정과 자율에 맡기는데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법문은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지(방장)의 법문을 소홀히 한다든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수행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으로는 주지의 법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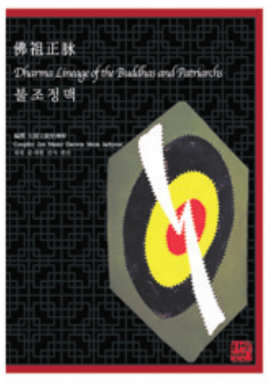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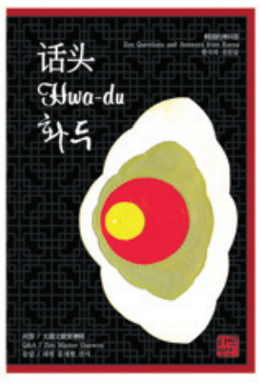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중,영,한 3개국어판 !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 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중,영,한 3개국어판 !

< 화두/Hwa-du >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사람 마음을 쉽게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정체성 확립 및 음성 표정 연출 등 이론과 실습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격려사), 회의, 토론, 최면 등 실습
❖ 인간관계에 필요 충분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일정

❖ 종 합 반 : 5인반, 10인반
❖ 개인지도 : 1인 개인지도, 2인반, 3인반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강의시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 國 說 法 硏 究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성 지 순 례 !!



1월 ~ 2월 마감이 끝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조기예약 기념 특전
5월 12일, 16일 (단2회 출발)
3월 15일 마감
미얀마 성지순례 1,490,000원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 3월 15일 출발
지장도량, 관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14일 , 4월 5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다영보이에서는 사찰 및 스님, 대중불자님들께 신묘년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설날 특별 선물 보급가"로 정성껏 준비한
순수자연 야생 보이차를 공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영보이차는 중국운남성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 교목림 지대인 해발 1,200m~1,500m 고지의 자연상태 에서 자란 야생차 잎을 채취하여 제조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야생 교목림 지역 차 채취 허가 및 독점계약, 베트남 차협회가 인증하는 야생차증명서를 받았으며, 베트남 차창에서 직접 숙성, 저장 보관 생산, 철저한 품질검사를 마친 정식 수입업체의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보이차의 가치는 얼마의 기간만큼 저장, 숙성 했는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다영 보이차는 1996년부터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숙성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 만의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



산차 38,000원 산차 65,000원 병차 99,000원 (500개 한정수량)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9>

네게도 내게도 하나가 있다

학승이 물었다.
"명(明)상좌가 대유령에 쫓아가 6조를 만났는데 어찌하여 가사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학인의 가사를 집어 올리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왔느냐?"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 올릴 수 없는 거야."

問 大庾嶺頭趁得及 爲什麽提不起
師拈起衲衣云 你甚處得者箇來
學云 不問者箇
師云 與麽即提不起

육조 혜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의 방에 찾아가서 하룻밤 〈금강경〉 설함을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 그야말로 돈오(頓悟)이다. 이에 홍인 스님은 혜능의 깨달음을 증명해주기 위해 자신이 쓰던 가사와 발우를 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 선법(禪法)을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혜능이 대유령에 이르자, 홍인 스님의 또 다른 제자 혜명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가사와 발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혜능은 곧 가사와 발우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는데, 혜명이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해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혜명은 마음을 바꾸어 예의를 갖추고 불법을 물었다. 혜능이 설법해 주었는데 혜명은 언하에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주 스님이 가사를 들어 올리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왔느냐?"고 물은 것은 가사가 나온 근원지를 물어봄으로 해서 질문한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려고 한 것이다. 누군가 가사를 주었을 것이고, 주는 그 마음이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가 묻는 것이다. 이렇게 간혹 선문답에서 어떤 장소를 물을 때는 대부분 근원지를 묻는다.

그런데 학승이 선적 질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은 곧 가사가 나온 곳을 모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가사를 들어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스승의 가사는 가사가 나온 곳을 아는 제자만 물려받을 수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스승의 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선문의 규칙이다. 이러한 엄격한 불법을 잘 알고 있는 혜명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홍인 스님의 가사와 발우를 들어 올릴 수 있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도 그것이 하나 있고 나에게도 하나 있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합(合)입니다. 어떤 것이 산(散)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합(合)하는 거야."

問 不合不散 如何辨
師云 你有一箇 我有一箇
云 者箇是合 如何是散
師云 你便合

불합불산(不合不散) 즉,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은 자성(自性)을 말한다. 중생의 본자성(本自性)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자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다.

조주 스님은 합(合)하면 곧 흩어지는 것[散]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르면 질문자는 할 말을 잃게 된다. 뭐라고 단정하면 합이 되지만, 그렇게 단정하면 동시에 틀려지기도 하므로 그것은 또한 산(散)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합은 곧 산이 되고 산은 곧 합이 된다는 말이니, 이러한 조주 스님의 관점에서 학승은 또 한 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선(禪)의 모든 진리는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는 부처님의 한 말씀에 귀착된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이 진리는 모든 이론의 초석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인생에 고뇌는 없어진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어긋나지 않는 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 길이야."

問 如何是不錯路
師云 識心見性是不錯路

식심견성(識心見性)은 종문의 큰 주제이다. 수행자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일명 식심(識心)이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만족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없다. 특히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마음의 진리를 크게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성을 보아야 한다. 일명 견성(見性)이다. 수많은 마음이 나오는 곳은 근본 성품, 즉 자성(自性)이다. 자성은 만물의 근원이면서 인간사의 근원이다. 자성은 누구든지 갖고 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성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생은 업식이 강해 자성을 보기도 어렵고 확철대오(確哲大悟)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성을 보고 깨달으면 사람이 순간 바뀌어 진다.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동안 고치지 못한 악습을 한 순간에 끊어내 버린다.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한 결 같이 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식심견성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선(禪)의 모든 진리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학승이 물었다.
"밝게 빛나는 구슬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빛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추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구슬이라 하는가?"

問 明珠在掌 還照也無
師云 照即不無 還什麽作珠

빛나는 보배 구슬을 손에 쥔 것도 좋지만, 무엇이 '명주'라고 부르는지 그 주인공을 알려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명산을 찾아가서 유람할 때가 있다. 아름다운 산을 보면 자연의 신비에 경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그때 그렇게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 속에 누가 있어서 감탄하는가? 항상 그것을 알아내보려고 해야 한다. 혹은 상을 타거나,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으면 그 순간 누가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보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칼 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선어록 해제 29
법문서귀(法門鋤宄)
김호귀 외래교수
동국대 선학과

〈법문서귀〉는 조동종 법맥에 속하는 담연원징(湛然圓澄)의 제3세에 해당하는 백암정부(白巖淨符, 栢岩道人, 位中淨符)가 강희 6년(1667)에 편찬한 것이다. 일찍이 임제종의 제7세에 해당하는 달관담영(達觀曇穎, 金山曇穎: 989~1060)은 〈오가종파〉를 통해 천황도오의 법계에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을 제외한 네 종파가 모두 마조의 법계에 속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구현소가 쓴 〈천황도오선사비〉에 근거해 주장한 것인데 이후로 교몽당(覺夢堂)의 〈교몽당중교오가종파서(覺夢堂重校五家宗派序)〉 및 일암일동(日庵一東)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됐다. 비은통용(費隱通容)의 〈오등엄통(五燈嚴統)〉 및 목진도민(木陳道忞) 등의 〈선등세보(禪燈世譜)〉의 법통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을 비롯해 환성지안의 〈선문오종강요〉에도 그대로 수용됐다. 나아가서 일본의 호관사련(虎關師鍊)은 〈오가변(五家辨)〉을 통해 선종오가 모두를 마조의 법계에 포함시켜버렸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황당하게도 일찍이 서천 제27조 조사 반야다라가 보리달마에게 '그대 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를 짓밟을 것이다'는 참언을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망아지는 물론 마조도일을 가리킨다.

조동종 법맥 백암정부 스님 선종사 오류 비판
"천왕도오 가공·천황도오가 실제 인물"

백암정부가 이와 같은 선종사의 오류를 비판하고 선종사상의 제문제를 정리한 것이 〈법문서귀〉 및 또 다른 저술 〈조등대통(祖燈大統)〉(1672년)이다. 곧 천황도오의 법계에 대하여 달관담영 이래의 오류를 논파하고 도반이었던 원문정주(遠門淨柱)의 〈회원약속(會元略續)〉을 지지해 조동종 법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후로 〈법문서귀〉에 후서를 붙인 석조대녕(石潮大寧)의 입장, 〈인천안목〉의 후서에 들어 있는 〈용담고(龍潭考)〉, 덕암양종(德巖養存)의 〈오가변정(五家辨正)〉은 백암종부의 주장을 옹호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법문서귀〉를 저술한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세상의 미치광이들이 하는 말이란 시(是)를 해치고 진(眞)을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화(禍)는 비단 한 사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및 후세에까지 미친다. 그런즉 그에 대한 변론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진실로 깨끗하게 해결해 방비를 단단히 하고 위험을 피해 칼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천고에 변하지 않는 도가 하루아침에 어둠에 휩싸여 해뜨는 곳이 없는 시절을 참아내야만 역시 천하와 후세를 비방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법당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기에 내가 만부득이하게 그런 것이다."

속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법문서귀〉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제일서: 중각법문서귀병오가변정서(重刻法門鋤宄竝五家辨正序)-덕암양존(德巖養存)(1690)
(2)제이서: 법문서귀서(法門鋤宄序)-자양정심(自若淨深)(1669)
(3)본문: 법문서귀(法門鋤宄)-백암정부(白巖淨符) 짓고, 자약정심(自若淨深) 교열
(4)본문의 말미에 붙인 백암의 自序: 법문서귀유서(法門鋤宄有序). 정미년 9월(1607)
(5)후서: 각랑도성(覺浪道盛, 覺浪道成, 天界道盛)의 제자 대녕(大寧)의 후서(1668)
(6)부록제일: '선통 검수시(禪通 劒叟是) 선사가 회산계현(晦山戒顯) 선사에게 보내는 편지' 및 '회산계현 선사가 검수시 선사에게 답변하는 편지'
(7)부록제이: 덕암양존(德巖養存)의 '오가변정(五家辨正)'은 호관사련의 '오가변(五家辨)'의 주장을 부정함.
(8)부록제삼: 일암일동(日庵一東)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및 소포 횡천수(小補橫川叟)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후서(1485년 10월) … 호관사련의 주장을 옹호함.

이에 백암정부는 천왕도오는 가공의 인물이고 천황도오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고찰했다. 그래서 〈송고연주통집〉 〈불조통기〉 〈현요광집〉 등에서 천황도오를 남악 문하로 기록함에 반해, 〈설봉어록〉과 더불어 〈법문서귀〉는 천황도오를 청원 문하로 기록하고 천황도오와 천왕도오가 두 사람이 아니라 천황도오 한 사람 뿐임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 첫째,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언급해 천왕도오는 날조된 인물임을 강조한다. 천왕도오가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9종의 문헌을 언급한다. 둘째, 일반적인 근거를 언급해 천왕도오가 가짜임을 주장한다. 반면 천황도오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다. 셋째, 오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어 배격한다.

이로써 천왕도오의 인물과 그 법맥을 부정하고 천황도오가 진실임을 주장하는 주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도원의 〈경덕전등록〉(1004) → 불일설숭의 〈전법정종기〉(1064 간행) → 백암정부의 〈법문서귀〉(1607) 및 〈조등대통〉 → 득산거사 임홍연의 〈명각선사어록〉 서(1634) … → 영각원현의 〈용담고〉(17세기) → 석조대녕의 〈법문서귀〉 후서(1668) → 덕암양존의 〈오가변정〉(17세기 말) 등이다.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중일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및 개강일정
서울206기) 1월 8일(토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부산 31기) 1월 9일(일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서울207기) 1월 11일(화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울산 2기) 1월 12일(수요반) 14시 | 신정동 효천빌딩뒷편
부산 32기) 1월 13일(목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제주 18기) 1월 13일(목요반) 19시 | CGV영화관맞은편
광주 20기) 1월 21일(금요반) 14시 | 화정역4번출구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

“물질과 과학 아닌 도와 덕이 사회발전 이뤄”

〈道〉 〈德〉



묵산 스님은 … 192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1940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3년 광명사에서 금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9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해인사 보문사 수덕사 칠불암을 비롯해 오대산 등지의 선원에서 70세까지 수행정진했다. 19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90세의 고령에도 찾아오는 출·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와 달동네 민가, 숲이 어우러진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 며칠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단장된 풍경은 눈에 익은 동양화를 보는듯 하다. 마을과 산이 연이은 산중턱에 자리잡은 보림선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소금이 뿌려져 있다. 신도들이 행여나 눈길에 미끄러질까 배려한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린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5)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의 근본도량으로 잘 알려진 보림선원. 이곳에는 한국 현대불교의 산 증인인 묵산 스님이 구순(九旬)의 고령에도 자상하게 출·재가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다.

도량에 들어서서 묵산 스님이 계신 요사채로 가니 처마 밑에 비둘기 한 쌍이 햇볕을 쬐며 졸고 있다. 인기척이 느껴질 법한데도 전혀 도망갈 기색 없이 편안한 모양새가 이곳에는 해칠 사람이 없음을 웅변하는 듯하다.

조실방에 들어서니 묵산 스님이 반갑게 맞으셨다.

“날도 추운데, 뭐하러 왔어. 앉으시오.”

스님은 워낙 고령이라 동작이 좀 느렸지만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다. 스님이 귀가 어두워진 탓에 미리 질문지를 준비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묵산 스님은 마침, 〈반야심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해설하는 원고를 집필중이셨다. 200자 원고지에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작은 글씨가 아흔의 세수를 의심케 한다.

“올해 세수가 구순이신데, 건강비결이 따로 있으신지요?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많은 불자들에게 법을 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보여드리자, 스님은 미리 준비해 둔 백지에 펜으로 한시를 쓰기 시작했다.

月曜長空萬古同(월요장공만고동)
火曜光明天一色(화요광명천일색)
水曜洗情永清淨(수요세정영청정)
木曜青山流水洞(목요청산유수동)
金曜乾坤玄幽通(금요건곤현유통)
土曜石佛放光明(토요석불방광명)
日曜東方紅日出(일요동방홍일출)

‘월요일은 만고의 머나 먼 허공과 하나 되고/ 화요일은 광명이 하늘을 덮는다/ 수요일은 망정을 씻어 영원한 청정을 이루고/ 목요일은 청산에 흐르는 물이어라/ 금요일은 하늘과 땅이 그윽하게 통하고/ 토요일은 석불이 빛을 발하며/ 일요일은 동방에 붉은 해가 솟는다.’

매일매일 자연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삶을 누리는 것이 건강비결이라면 비결이란 뜻인가? 어릴 적부터 약골이었던 스님은 14세부터 27세까지 각혈이 멈추지 않아 병을 고치기 위해 일념으로 관음정근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전 고관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거짓말처럼 병이 나아 본격적으로 출가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 현재 보림선원 야외법당에 조성된 커다란 관세음보살상은 젊은 시절 병고에서 벗어나게 한 ‘자성(自性)의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시절이 하수상한지라, 세간의 일을 들어 본격적인 법문을 청했다.

“나라가 구제역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남북 당국은 대결국면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위생문제가 주요한 원인이지만, 크게 보면 인과를 소홀히 한 인과응보라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와 같은 축생(畜生)을 가둬 놓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결과이죠. 인과의 원리는 불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갈등 역시 인과의 도리로 풀어가야 합니다. 전쟁으로는 민족 모두의 안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자각해야지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면서 함께 손을 잡고 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절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지구적인 이상기후 속에 서민경제도 어려워 세간 속에 사는 일이 고난의 연속인듯 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경계 속에서도 여여(如如)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살육하려는 투쟁심으로는 사회 안녕 못 얻어

“각자 분수를 지키고 본분을 지켜서 서로 이해하고 양심을 갖고 살아야만 이웃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한 세상이 됩니다. 남을 괴롭히고 살육하려는 투쟁심으로는 절대 사회의 안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축생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따뜻하고 배부르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묵동정 행주좌와 가운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은 덕(德)을 닦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도(道)를 닦는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힘을 써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와 덕으로써 모든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이 도모 되었지, 물질과 과학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지키고 도를 닦아나가는 평상심(平常心: 시비·분별과 번뇌·망상이 없는 무심)의 생활을 해야 마침내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구도의 과정에서 특히 기억나는 일화를 말씀해 달라고 청을 드리자, 스님은 눈에 그리듯 생생하면서도 간결하게 말씀하신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전라도 황룡사에서 지일화(池一華) 도인스님을 만나 〈금강경〉을 90일 동안 배워, 만법이 공(空)한 도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대 초반에 백봉 도인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무엇이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까?’

‘거, 담배 한 대 주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후 삼각산 토굴에서 혼자 공부를 한 후 백봉 거사의 인정을 받은 것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사이신 인곡 큰스님은 산 짐승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비보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셨는지요?”

“인곡 큰스님은 고창 출신의 대도인이셨지요. 처음 해인사에서 뵙고 제자 될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절대 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사흘을 찾아뵙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장경각으로 올라오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법문을 해주시면서 ‘사고원래여인주(師姑元來女人做)’ 화두를 참구하라고 하셨지요.”

‘사고원래여인주’ 공안은 조주 선사와 연관된 선화(禪話)에 등장한다. 한 학인스님이 조주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늦은 밤에 ‘무(無)자’ 화두를 깨쳤다고 도량에서 큰소리를 치고 다녔다. 그 다음 날 아침, 공양을 마친 조주 선사가 대중에게 간밤에 소란을 피운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가장 말석에 앉은 행자가 이실직고(以實直告) 했다. 조주 선사는 학인을 점검하려고 질문을 던졌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이 많은 비구니는 여인입니다.”

이 대답에 조주 선사가 학인을 인가한데서 유래한 화두이다.

물론, 인곡 스님에게 이 화두를 받을 당시, 묵산 스님은 전혀 뜻을 알지 못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오랜 세월 참구할 수 밖에 없었다.

묵산 스님은 한창 발심이 나서 공부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펜을 들어 다시 백지에 한시를 적는다.

多年山中覓鯨魚(다년산중멱경어)
添得重重碍膺物(첨득중중애응물)
暗夜精進月出東(암야정진월출동)
忽然擊碎虛空骨(홀연격쇄허공골)

스승 인곡 스님의 오도송을 그 오랜세월 동안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즉석에서 써내려갔다. ‘오랫동안 산중에서 고래고기를 찾는데/ 점점 거듭거듭 물질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 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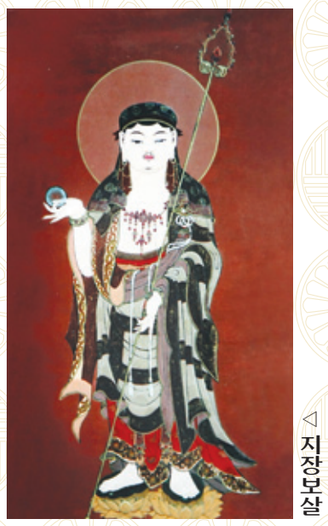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 2만불 조성(석가여래삼존불 협시 문수보살·보현보살) 17×15×24cm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설날선물로 최고!!!



◁ 지장보살



◁ 달마선사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마음이 만물이고, 만물이 마음이라



당신의 깨달은 심경을 선시(禪詩)로 지어 백봉 거사의 인가를 받았다며, 직접 백지 위에 써주었다.

無面目者是本然(무면목자시본연)
頭頭物物從此來(두두물물종차래)
秋月春花君知否(추월춘화군지비)
石女吹笛木人舞(석녀취적목인무)

'얼굴 없는 자, 이것이 본래 이러하다. 두두물물이 이리로 좇아 왔다. 가을달 봄꽃을 그대는 아는가. 돌여인은 젓대를 부는데 나무사람은 춤을 춘다.'

구십 평생의 살림살이가 이 노래에 담겨 있으니,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게송에서 돌여인이 피리를 불고 목인이 춤을 추는 것은 우리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인 법신(法身)의 무심(無心)한 묘용을 뜻하는 것입니까?"

묵산 스님은 깨침은 자득(自得)하는 것이기에 구구한 설명은 쓸 모 없다는듯 간단한 사족(蛇足)으로 답을 대신했다.

물질에 쏠리지 말고 인생문제 풀어라

기복으로는 근본문제 해결 못 해

"만물이 마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만물이고 만물이 마음이니, 둘이 아닙니다."

필담(筆談)을 섞어 가며 나눈 대화임에도 1시간 30분 여의 문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척하면 삼척'이라고 10여 개의 질문지를 읽고 즉답한 대담은 연로하신 스님의 건강을 고려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했다.

"큰스님, 끝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불자들과 스님들에게 바른 마음공부의 자세를 일러주십시오."

"물질에만 쏠리지 말고 자기 본래면목을 걷어잡고 열심히 인생문제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복불교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절 마당으로 나오니, 날개를 다친 한 비둘기가 햇볕이 내리쬐는 눈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도량 안의 비둘기들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절 밖에 나가면 다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이다.

갈등이 그칠 날이 없는 세간 속에서도 참다운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그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렸으리라. 사람들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모두 하나가 될 때 지구별 위에서도 불국토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란 희망을 놓고 싶지 않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에 막혀 답답하더라/ 어두운 밤 정진하는데 달이 동쪽으로 떠오르니/ 홀연, 허공의 뼈를 쳐부수도다.' 이런 뜻이다. 묵산 스님은 산짐승들도 인곡 스님을 겁내지 않은 정도로 대도인이었다며 거듭 스승을 찬탄했다.

그러나 묵산 스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은 바로 백봉 거사였다.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탁발하고 염불정근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1975년 서울 정릉4동 북한산 자락에 보림사를 창건하고 선방을 만든 것은 백봉 거사를 모시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백봉 거사를 대도인이라 느껴서 친견한 뒤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樞: 사물의 근본)도 하나이며 생명도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我)와 법(法)이 모두 공하다[俱空]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복으로 흘렀을지도 모르니, 그 은혜가 참으로 지중합니다. 백봉 거사님의 선시집과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책을 발간해서 대중에게 보시한 일이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비록 거사의 신분임에도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었던 묵산 스님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에 대한 당신의 안목을 〈금강경 노래〉로 지어 백봉 거사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14



진언종의 중흥조 카쿠반(覺鑁) ①

진언종의 중흥조 카쿠반(1095~1143)이 300여 년 전 종조 쿠카이(空海)의 가르침을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기존의 세력에 밀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정진하기 위해 쓴 '밀엄원발로참회문(密嚴院發露懺悔文)'을 썼다. 이 참회문은 현재에도 진언종 각 종파에서는 자계(自戒)의 경문으로 널리 독송되고 있다. 사건은 진언종의 성지인 고야산에 대전법원(大傳法院)을 지어 교학의 연찬과 밀교수행의 도량을 확립하고자 한 것에서 발단됐다.

36살의 카쿠반은 쿠카이의 중생구제의 열망이 깃든 고야산의 사원이 승려들의 생활수단으로 전락, 신심이 엷어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승려들에 의해 타락해가는 모습을 한탄했다. 이러한 현실을 수행중심의 도량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본산인 금강봉사(金剛峰寺)는 물론 동사(東寺), 제호사(醍醐寺)의 승당 세력은 그를 박해하고 추방하였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마침내 근래사(根來寺)를 건립, 이곳에 대전법원과 그 안에 지어진 밀엄원을 옮겨 제자양성에 몰두했다. 사후에는 그가 종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한 교의를 기반으로 제자들에 의해 신의진언종(新義眞言宗)으로 발전해갔다.



금강봉사 서탑 내부

스승 쿠카이의 유업 계승을 생애 목표로 삼은 카쿠반

정토사상을 진언종에 수용시켜 신의진전종 창종

현재의 신의진언종은 좁게는 각 산회에 속하는 진언종 18본산의 하나이지만 넓게는 고의(古義)진언종과 그 세력을 나누고 있다. 고의진언종이 최고불인 대일여래가 스스로 설법한다는 본지신(本地身) 설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의진언종은 현실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하나하나가 가지신(加持身)을 나툰 대일여래의 설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의상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승속 어디서나 당대의 개혁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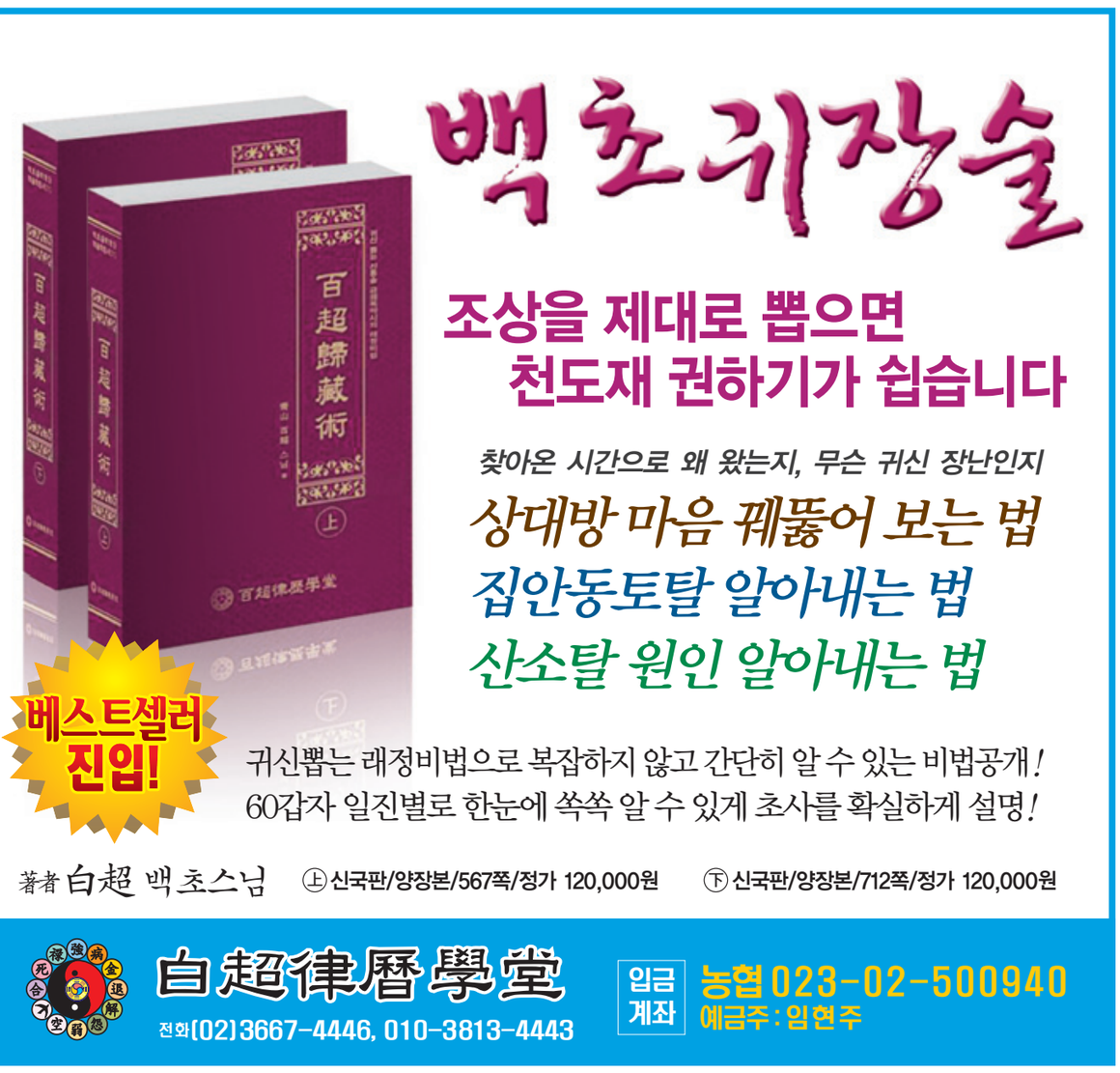
카쿠반은 13세에 쿄토의 인화사(仁和寺)에서 들어가 16세에 정식 승려가 되었다. 이후 동대사에서 수학하고 20세에 고야산에 입산하여 쿠카이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았다. 27세에 스승 칸죠(寬助)로부터 전법관정을 받고 이후 쿠카이 이래의 동량으로 불려졌다. 우주의 구성요소인 지 · 수 · 화 · 풍 · 공륜의 5가지 상징으로 구성된 오륜탑이 일본에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된 〈오륜구자명비밀석(五輪九字明秘密釈)〉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카쿠반은 당시 유행하던 정토사상을 진언종의 입장에서 포용했다는 점에서 시대상의 흐름에도 무관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밀엄정토를 대일여래가 주재하는 보편적인 정토로 보고 아미타여래의 서방정토를 그 일부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밀엄정토가 중앙에 있고, 서방정토가 서쪽에 있다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밀엄정토가 서방정토를 포섭하고는 있지만 또한 서방정토 이외에 밀엄정토가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즉신성불을 주장하는 교의에 따른 해석인 것이다. 깨달음을 극락왕생 이후로 유보한 정토사상을 현실 속 상적광토(常寂光土)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그는 인계(印契)의 신밀(身密), 진언의 구밀(口密), 만다라의 의밀(意密)의 3밀 가운데 신밀과 구밀의 2밀 수행은 물론 3밀 가운데 어느 한 밀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도 즉신성불이 가능하다는 이행(易行)을 순차적으로 논함으로써 종조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이해했다. 말하자면 근기의 우열에 의한 3→2→1밀성불을 펼침으로써 이행도인 염불행에 의한 극락왕생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정토사상이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도피라고 하는 관념과 당당히 마주서서 중생의 세계를 장으로 하는 즉신성불의 밀교적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후의 정토보다도 현실이 곧 정토임을 외침으로써 사바세계 내에 안심을 부여한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새연재

수리아의 검-1

글·고지연 삽화·김흥인

암흑속의 두 소년①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이 가까스로 소년의 눈꺼풀을 붙잡았다. 어차피 눈을 뜨면 펼쳐질 현실이다. 조금만 더 잠 속에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귀는 서서히 깨어나는 중이었다. 언젠가부터 어떤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소리는 난다의 어머니가 키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마을 뒷산을 가득 채우고 사라지던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소리일 리가 없다. 적어도 그 정도의 정신은 차리고 있다. 게다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소리들이 무엇인가에 부딪혀 흩어질 때마다 나는 시원한 냄새가 소년의 코를 자극했다. '아! 여긴 바다 근처야! 분명해.' 소년은 이제 바다의 소리와 냄새를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자, 좋아. 이제 귀도 코도 제 기능을 찾았으니, 다음엔!' 소년은 있는 힘껏 눈을 떴다.

그런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다시 감았다 떠도 마찬가지, 주위는 여전히 칠흑 같이 어두웠다. 소년은 벌떡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다. 현기증이 났다. 소년은 있는 힘껏 허공에 대고 팔을 휘휘 저어보았지만 옷자락 소리 말고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암흑이었다.

"아얏!"

외마디 비명 소리가 그 어두운 공간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눈을 더듬던 소년이 그만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만 것이다.

"이봐.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이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소년은 온 감각을 이용해 암흑 속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넌 눈을 뜬 게 맞아. 괜히 죄 없는 눈을 괴롭히지 말라구."

"거기 누구야? 지금 너 어디 있는 거지?"

이번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오른쪽이로구나.' 소년은 그 낯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 웃는 건데? 넌 누구야? 여긴 어디지?"

"하하하. 버릇없는 소년이로구만. 그런데 소년은 맞나? 소녀라면 실례데 말이야. 목소리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네. 어찌 되었든, 이봐. 상대한테 정체를 묻기 전에, 자신의 정체부터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구태의연하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그 이유를 파고들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사사건건 따지고 들 필요 있겠어? 힘을 아끼라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무니야. 그리고 남자라고. 도대체 이 목소리 어디가 여자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목소리로 소년, 소년 하지마. 기분 나쁘니까."

"뭐야! 이름이 무니라고? 하하하. 누군지 모르지만 꽤 대단한 이름을 지어줬군."

"왜 자꾸 웃는 거야? 도대체 넌 누구지? 한 번 더 물어보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얼른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흠흠. 소년. 아니. 무니. 넌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름에 뜻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냥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정체나 밝혀. 이 늙은이야!"

"거 참. 너무 거칠구만?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씨야. 이봐. 난 그다지 늙지 않았다구. 아니, 그것보다 넌 늙은이한테 반말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냐? 하여간 어찌 되었든 좋아. 정체를 밝히지. 내 이름은 칼키야. 잠부에서 왔어."

"칼키?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있는데. 혹시 날 알아?"

"아니. 너 같은 꼬마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래도 지옥은 아니지. 오늘이 그믐이라서 그렇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부셔서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이 환했거든. 그렇게 환하고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놓고 살 수 있는 것은 신뿐이니까. 여기가 인간계와 천상계 사이 어디쯤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그러나 범위를 아주 많이 좁히자면, 여긴 감옥이야.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보다 더 나쁠 수 있어. 신들이 만든 감옥이라니! 끔찍 하지. 여기선 늙지도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갇혀있어야 하거든. 소멸 아니면 불멸이야."

감옥이라는 말에 무니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럼 난다는 어떻게 된 거지?' 무니는 잠부에 도착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무엇인가에 쫓겼던 것까지만 기억이 났다.

"그런데 이봐. 넌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인간이 신의 감옥에 들어오기란 엄청 힘든데. 경쟁률이 무척 세다구."

"나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저기 혹시 내가 여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사람 없어? 아니면 짐승이라도?"

"흠. 글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네가 거기 누워있었어. 그리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넌 꼬박 이틀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잤지."

무니는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난다와 칸타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헤어진지 이틀이나 지났다니.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힌 신세다. '그런데. 뭐! 감옥? 내가 왜?' 무니는 그제야 의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틀 전,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칸타카도 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던 거 같다. 어쩐지 그 무리들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난다가 "무니야, 도망쳐!"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달아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잠시 타 봐도 될까요?"라고 부탁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든 난다의 말에 무니는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정신없이 뛰어온 목적지가 감옥이라는 소린가. 그것도 신의 감옥? 이때 칼키라는 남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너 지금 뭐해? 어두우니 영 답답해서, 원."

그리고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탁.' 하면서 순식간에 주위가 환해졌다. 무니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다.

"역시 대화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야 깊이가 생긴달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빛의 자극에 놀라 미처 대답할 정신이 없는 무니를 놀리는 말투였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무니는 한 쪽 눈부터 시작해 감았던 눈을 떴다. 이윽고 두 눈을 다 뜬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우며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 한 소년의 얼굴이었다. 무니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고 소리 질렀다.

"너, 너 뭐야!"

"나? 늙은이. 늙은이, 칼키."

그 소년은 씩 웃으며 무니를 바라봤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얀 치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는 장난기로 반짝거렸다. 마치 할 말을 잃은 듯 상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던 무니는 이윽고 할 말을 찾았다는 듯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데! 왜 불은 안 켜고 있었던 거야!!"

고지연 작가는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문체를 통해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등장인물



무니
전생이 없는 소년.



난다
무니의 친구이자
모험의 동반자.



데비
기억을 잃은 소녀로
무니의 일행이 된다.



연금술사
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연금술사.



나가세나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산 노인.



칼키
파괴자의 운명을
가진 소년.



테드모
루드라 신이 가장
총애하는 인간.



루드라
파괴와 재생의 신



크리슈나
유지와 보존의 신.



칸타카
무니와 같은 날
태어난 하얀 망아지.

'효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분개(分個) 판매 개시!

본 육임 임상활용 CD 프로그램 및 육임 각 임상용 활용서는 육임의 정수(精粹)를 집대, 또는 장착시켜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대로 달성하여, 이 시대 전무후무한 **친견 · 임상활용 명품(名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高價)이므로 이를 분개(分個)시켜 요긴한 것만을 골라 쓰시게 하고, 또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알아 먼저 말할 수 있고'** 한글로 되어 쉽고 간편합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 **CD프로그램 500만원**

이하 분개된 종목 및 가격, 또는 육임활용서 내역입니다.

- 효사육임산책 2011 개정판 (※) — CD 프로그램 150만원(활용서 200만원)
- 효사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 증보판 (※) (육임대계전서 합착됨) — CD 프로그램 100만원(활용서 20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 증보판 —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 (※) —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태아분만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개정판 — CD 프로그램 10만원(활용서 12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 개정판 — CD 프로그램 30만원(활용서 25만원)
- 효사숙 사주 (※) — CD 프로그램 30만원
- 월영도 — CD 프로그램 20만원
- 매화역수 — CD 프로그램 20만원
- 작명(作名) 감정 — CD 프로그램 30만원
- 주역 — CD 프로그램 20만원
- 택일법 — CD 프로그램 10만원
- 당사주 — CD 프로그램 10만원
- 토정비결 — CD 프로그램 10만원
- 꿈 해몽집 — CD 프로그램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 CD 프로그램 20만원
- 동의보감 — CD 프로그램 10만원



이하 육임임상용 활용서 입니다.

- 고귀명수(鼓龜命數 : 일생사 및 당면사) 육임운명판단법 신간 (新刊) — 350만원
  (1월 15일까지 150만원 할인 가격 배송)
  (1권 · 6권 · 60권 / A3 · A4 · B4크기 중 선택)
- 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증보판(좌정용 / 휴대용) — 50만원 / 30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 개정판 — 20만원
- 효사육임풍수 2011 개정 증보판 (※) — 30만원
- 오행제례의식집 2011 개정판 — 15만원
- 효사육임강론 2011 제8판 최종본 — 55만원
  上(육임종합학습서 2015쪽) (※)
  下(육 임 임 상 용 1750쪽) (※)
- 효사도정기(道程記) — 12만원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감동적인 법회 / 각 목적사 기도문 / 각 목적 법문 인용구 수록 (※) — 10만원

위(※) 표시의 육임활용서 및 CD프로그램은 더욱 귀중한 추천 명품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수강신청 받습니다

www.taotemple.net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효사직통 070-7514-8680 / 사무실 02)738-8680 / FAX 02)738-868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요절복통

여래네 집

#41. 눈 오는 날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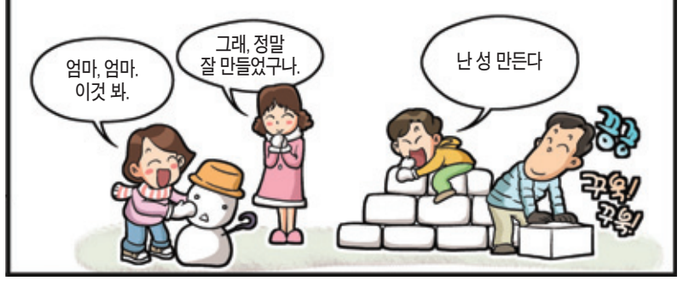
일요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은 아빠를 보리와 여래가 깨웁니다,



그러고 보니 올겨울은 최근 몇년에 비해서 유난히 눈을 많이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아빠는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이지만 식구들은 그저 신이나 있습니다,













이주일의 화두

무익한 천 마디의 말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 마디가 더 유익하다 〈법구경〉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쳘,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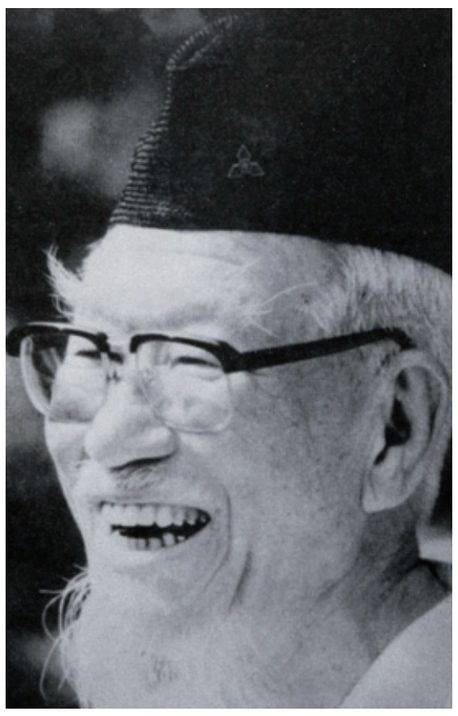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어집 발간

“내가 부처라 생각해야 부처공부 하지”





“실로 이 우주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30년 전 부산 남천동 보림선원에서 백봉 거사가 대중들에게 설법한 말이다. 백봉 거사의 본명은 김기추(金基秋)이며, 1908년 음력 2월 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 항일 민족운동을 벌이다 부산형무소에서 1년 간 복역한 뒤, 만주 땅에서 ‘불령조선인(不逞朝鮮人)’으로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광복 후, 교육 사업을 하다 50세에 불법(佛法)을 만난 뒤로 속가에 머물면서 거사풍(居士風) 불교를 일으켰다. 그 후 1985년 8월 2일 보림선원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78세의 나이로 모습을 거뒀다. 최근 이런 백봉 김기추 거사의 법어를 모은 〈허공법문〉이 책으로 출간됐다.

책은 생전의 백봉 거사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를 정리한 것으로,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장에는 백봉 거사의 수행과 삶, 둘째 · 셋째 장에는 백봉 거사가 저술한 〈금강경강송〉 〈유마경대강론〉 〈선문염송요론〉 〈백봉선시집〉 〈절대성과 상대성〉을 텍스트로 삼아 설법한 내용, 넷째 장에는 〈선문염송요론〉에 대한 법문, 다섯째 장에는 〈백봉선시집〉에 관한 법문을 수록했다.

백봉 거사의 법어를 엮은 저자 장순용은 “백봉 거사는 57세에 화두를 잡고 1년도 되지 않아 ‘확철대오(깨달음)’ 해 육조혜능 대사처럼 돈오를 재현했다”고 말했다. 당시 백봉 거사가 대오했다는 소식은 승가에도 전해져 청담 스님에겐 출가를, 혜암 스님에겐 재가 설법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이후 백봉 거사는 “불법은 머리를 깎고 안 깎고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재가에서 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거사는 경전이나 선어록에 대해 전통적인 해설보다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설법을 펼쳤다.

백봉 거사의 설법은 열정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전통을 고수하기 보단, 늘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수행방편을 제시했다. 스스로도 좌선보다는 동선(動禪)을 강조했다. 특히 공리(空理)의 방편을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진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든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적이고 주체적인 근원으로 제시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근본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것도 우리의 권리로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봉 거사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근간으로 새로운 화두라는 뜻의 ‘새말귀’를 제시했다. 전통적 화두 수행이 승려들을 위한 것이라면, 새말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창안됐다. 세수를 하든, 밥을 먹든, 운전을 하든, 일상생활 전부를 화두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재가수행자에게 어울리는 계율과 수행방법을 제시했다.

백봉 거사는 “자기 자신을 중생이란 틀에 가두면 공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스스로를 부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부는 뭔가 모자란 점을 채우거나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닌, 본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사는 “미혹한 부처라도 부처가 부처 공부 하는 것이지, 부처가 아니면 부처 공부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순용 편자 | 고려원북스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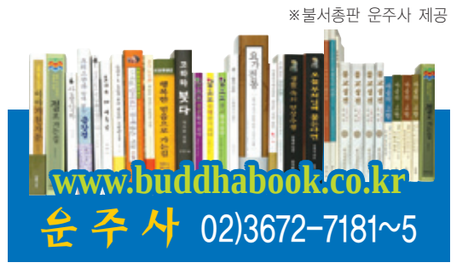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5~1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사벽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4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9	입보살행론	샨티데바	부다가야
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종범 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불법(佛法)이 가장 쉬웠어요!

민족사, ‘왕초보 시리즈’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발간

불교는 오랫동안 한국 땅에서 역사와 전통과 함께 뿌리내려 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된 경전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수행법은 일반인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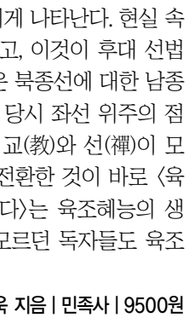
이런 초보불자들을 위해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왕초보 시리즈’와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민족사는 최근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생활명상〉 〈위빠사나〉 〈관세음보살〉 〈사십구재〉 등을 새롭게 펴냈다.

‘왕초보 시리즈’는 진짜 ‘왕초보’들을 위해 전문적인 깊이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누구나 읽기 쉽게 풀어냈다.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역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보다 더 실용적인 지침을 담아낸 책들이다.

이은정 기자

초보불자도 혜능처럼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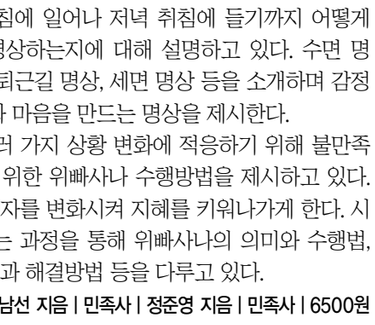


육조혜능의 행적과 구도 과정, 법문과 문답 등을 수록한 이 책은, 육조혜능 대사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와 법어집이다. 선사의 법어집인 〈육조단경〉이 경전의 칭호까지 붙으며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온 것은, 혜능이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서 보여준 평상시의 모습 때문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고, 자신도 혜능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젖게 됐다.

〈육조단경〉에는 선(禪)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 속에서 선 체험의 경지를 다양하게 드러냈고, 이것이 후대 선법의 자연스러운 대세가 됐다. 〈육조단경〉은 북종선에 대한 남종선의 우월성, 점수보다 돈오를 내세웠다. 당시 좌선 위주의 점수를 극복하고자 돈오를 세상에 전했다. 교(敎)와 선(禪)이 모두 녹아있지만 선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는 육조혜능의 생애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불교를 전혀 모르던 독자들도 육조혜능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욱 지음 | 민족사 | 9500원

마음 다스리면 몸도 건강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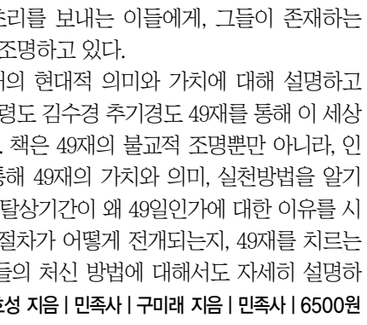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이제 단순히 불교 수행과정이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건강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마음가짐에 대한 관심은 서구사회에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생활명상〉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 취침에 들기까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면 명상, 설거지 명상, 출퇴근길 명상, 세면 명상 등을 소개하며 감정을 닦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명상을 제시한다.

〈위빠사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빠사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수행자를 변화시켜 지혜를 키워나가게 한다. 시작, 진행,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해 위빠사나의 의미와 수행법,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김남선 지음 | 민족사 | 정준영 지음 | 민족사 | 6500원

불교의 신행과 문화를 현대적 조명



현대인들은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적어도 일주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 이유를 밝히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지장보살 등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사십구재〉는 49재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前 노무현 대통령도 김수경 추기경도 49재를 통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했다. 책은 49재의 불교적 조명뿐만 아니라, 인문학, 민속학 등을 통해 49재의 가치와 의미, 실천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탈상기간이 왜 49일인가에 대한 이유를 시작으로, 49재의 의례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49재를 치르는 다양한 방법과 유족들의 처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호성 지음 | 민족사 | 구미래 지음 | 민족사 | 6500원



매니큐어가 모네의 '연꽃'으로 변신

정산 스님, 프랑스 샤랑통 초대전 개최



다양한 색채와 대담한 형태, 빛을 이용해 구상과 추상을 오가는 작품. 어떤 작품들은 마치 모네의 '연꽃' 시리즈를 연상케 하며 관객을 명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매니큐어로 그린 이 그림들은 화려함 속에서 무(無)와 공(空)사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기성 작가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감각적 작품들을 선보인 정산 스님은 1월 20일~2월 12일 프랑스 샤랑통(Charenton)시에서 '제58회 Salon de Charenton 명예작가 김연식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약 25점의 작품을 출품해 작가 특유의 오묘한 동양정신의 세계와 특유의 조형어법으로 그려낸 무욕의 이상적인 인간세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산 스님은 매니큐어라는 독특한 재료로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표현했다. 전시는 평면회화를 중심으로 전시벽면과 공간을 이용한 공간설치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정산 스님은 이미 사찰음식전문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런 스님이 매니큐어로 그린 그림을 들고 다시 대중들 앞에 나섰다. 사찰음식전문가라는 타이틀과 스님이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단연 이슈거리가 됐다. 어쩌면 스님 본인에겐 이런 꼬리표들이 진정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방해물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산 스님은 오히려 그런 사찰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미술작품 활동에 주력했다. 전국 사찰을 돌며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찰 주변의 자연풍광에 매료됐고,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들을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냈다.

정산 스님은 '관조+명상'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세 번의 개인전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았다. 특히 작년에 열린 개인전에서는 2만 5000여 개의 성냥갑을 활용한 설치작품으로 '무(無)와 유(有)' '공(空)과 색(色)'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관점으로 연출해 냈다. 이번 특별전에도 정산 스님의 작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지닌 고유한 색과 자연친화적인 미감이 함께 나타난다.



정산 김연식의 '관조+명사'

이번 전시는 프랑스 샤랑통시의 공식 초청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작가에게는 의미가 깊다. 샤랑통시는 프랑스에서 이름난 교육도시로, 60여 년간 살롱전을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정산 스님은 이날 개막식에서 샤랑통 시장상을 수여한다.

스님은 이런 개인적인 영예를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 문화교류의 장'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한국의 문화 알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부처님이 메모꽂이로 나투다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박연옥 대상

부처님, 목탁, 연꽃 등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나투었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불교문화상품 및 제품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이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내 마음의 풍경'의 박연옥씨가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탑 등의 모양을 여려 겹 중첩시켜 메모나 명함, 필기류를 놓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금빛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구매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세트로 조립이 가능하며, 개인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작품이다. 또한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현대적이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2010년 12월 13~19일 접수된 이번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총 27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참가자 수가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특히 관련분야 학생들의 참여도가 70%가 넘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을 증명했다.

이번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동국대 불교조형디자인 교수 청원 스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조희숙 부장, 한국디자인 진흥원 윤병문 과장, 월간디자인 전은경 편집장 등이 참여해 2차에 걸쳐 엄중히 심사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외에 우수상 2명, 장려상5명, 특선10명, 입선16명이 선정됐으며, 당선된 작품들은 1월 19~2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가공작업을 통해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作. 박연옥 '내 마음의 풍경'

90일만 허락된 '왕오천축국전'

'실크로드와 둔황'전 열고 있는 최 광 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왕오천축국전〉은 단, 90일의 전시가 끝나면 3월 17일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은 1월 1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왕오천축국전〉을 90일 동안 그리고 본문의 60cm만 공개하기로 프랑스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관장은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될 것이다. 반면, 〈왕오천축국전〉은 반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프랑스로 흘러간 것이어서 사실상 문화재 반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왕오천축국전〉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한국인에 의해 쓰인 최초의 해외여행기로, 세계 최고의 여행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 · 경제 · 문화 · 풍습 등을 알려주는 세계의 유일한 기록물이다.

최광식 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고려불화'전에 이어 '실크로드와 둔황'전을 두고 세간에서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치우친 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이에 최광식 관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다수가 불교와 관련이 많아서 일뿐, 해외에 나가있어 쉽게 보지 못하던 우리 문화재를 전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와 둔황'전에 이어지는 전시는 '바로크시대'전 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독교 문명을 보여주는 바티칸전과 이슬람문명전, 마야문명전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해 각종 회화 공예 고분 출토품 등 실크로드 유물 220점을 선보이고 있다.

천진영 기자

윤남진 REVIEW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



티핑포인트 | 말콤 글래드웰 지음 | 21세기북스

〈티핑포인트〉라는 책은 이미 경영분야의 고전과 같다. 하지만 이 책은 범죄, 중독, 소비,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심리가 어떤 법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티핑포인트(TippingPoint)라는 말은 유행의 출현, 극적인 전환, 갑작스런 범죄의 증감이나 자살신드롬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하고 전염되는 극적인 순간'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어떤 극적 변화나 전환의 정점은 어느 순간이며, 그 징후는 무엇이고, 그 정점은 어떤 핵심요소들이 작동해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티핑포인트를 완성시키는 3가지 규칙을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이라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 법칙은 사회적 전염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의미다. 이 영향력 있는 소수를 저자는 커넥터, 메이븐, 세일즈맨으로 나눈다.

커넥터(connector)는 세상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우리를 사회적 서클로 인도하는 사람들, 호기심과 자신감과 사교성과 정열을 가진 사람들이다. 메이븐(maven)은 '자신을 축적한 자'라는 의미이다. 우리를 새로운 정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일즈맨(salesman)은 우리가 정보에 관해 미심쩍어할 때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고착성 요소는 '메시지가 기억할 만한 것인가? 그 메시지가 기억할 만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변화를 창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행동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를 사례로 들어 '이야기 형태'가 어린이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조직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마케팅 같은 것이다.

세 번째는 상황의 힘이다. 전염성은 그것이 발생한 시대와 장소의 조건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상황이 전염성을 점화시킬 수 있는 맥락의 변화를 초래한다. 저자는 상황의 힘이라는 규칙을 범죄의 전염이론인 '깨진 창문 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하나의 깨진 창문을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이 집에는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돼 더 많은 창문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작은 무질서의 신호가 바로 심각한 범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상황의 힘이라는 규칙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탈맥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파악하고 거기서 티핑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전염을 점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군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즉, 바로 그 자리가 아닌 곳에 투입되는 자원은 곧바로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신원사 쪽에서 바라본 계룡산

최연의 산 이야기〈39〉 계룡산 1

후천개벽의 새 시대는 계룡산이 중심이다

백두대간은 동해를 끼고 남으로 내려오다가 태백산을 빚어 올린다. 서남쪽으로 방향을 튼 백두대간은 소백산을 거쳐 삼남지방을 동서(東西)로 가른다.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으로 솟구쳐 오른 후 지리산에 이르러 크게 용트림한 다음 뻗음을 마감한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에 이르기 전에 백운산 어름에서 서쪽으로 큰 산줄기가 하나 갈라져 나오는데 이를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이라 한다. 다시 여기에서 북쪽으로 뻗는 산줄기가 금남정맥(錦南正脈),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호남정맥(湖南正脈)이다.

계룡산(鷄龍山)은 금남정맥의 끝자락에 솟아 오른 명산이다. 백두대간 상의 백운산에서 계룡산에 이르는 금남정맥은 태극(太極)형상으로 굽이치며 뻗어간다. 그래서 계룡산을 산태극(山太極)이라 부르기도 한다.

백두대간에서 금남정맥이 갈려 나오는 어름인 진안은 금강(錦江)의 발원지이다. 금강은 금남정맥의 동쪽 기슭을 따라 굽이 굽이 흘러가다가 계룡산을 북쪽에서 휘감아주며 서해로 들어간다. 이 또한 태극 형상으로 굽이쳐 흐른다. 이를 수태극(水太極)이라 한다. 계룡산은 산태극, 수태극의 회룡고조(回龍顧祖)의 천하명당인 것이다.

회룡고조란 용이 몸을 돌려 조산(祖山)을 돌아보는 형국을 말한다. 〈주역(周易)〉에 "태극(太極)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근원이며 이로부터 만물(萬物), 만상(萬像)이 갈라져 나왔다"고 설명한다.

계룡산의 이름은 풍수에서 최고의 길지인 명당으로 치는 '금계포란(金鷄抱卵)'과 '일룡농주(日龍弄珠)'에서 비롯됐다.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는 "나라의 도읍터로는 계룡산 아래 금강이 제일 좋고, 송악이 그 다음이며 한양이 셋째요, 넷째는 평양이고, 다섯째가 경주다. 경주는 바다 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인 원주는 터가 너무 좁다. 강화도 마리산은 비록 바다 한가운데 있으나 왕이 머물 땅이지만 얼마 못가서 떠나게 된다"고 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개국 초기에 계룡산 근처에 정도하려고 2년간 궁궐 축조공사를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 상소로 결국은 두 번째로 좋다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계룡산은 이씨 왕조가 들어올 땅이 아니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이는 하륜(河崙)이다.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아 중요한 교통수단인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신도안(新都內, 〈한국도참〉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이상적 지형)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흉하다는 것이다.

계룡산 일대가 풍수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정감록(鄭鑑錄)〉에 '송도 500년, 한양 400년, 계룡산 신도 800년, 가야산 가조 1000년'이라는 기록 때문이다. 계룡산 신도안은 한 때 토속신앙의 성지가 돼 명성을 날리다가 삼군 통수부인 계룡대가 이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신도안에서 바라보는 천황봉은 좌우의 균형이 딱 맞는 삼각형의 모습이다. 단정하고 웅장한 삼각형 모양의 산을 풍수학에서는 자기성(紫氣星)이라고 부른다. 이런 곳은 대성자나 훌륭한 왕자를 낳고 기르는 기운이 있다.

이런 연유로 〈삼한산림비기〉에는 "계룡산에 도읍하면 밝은 임금과 의로운 신하가 연이어 나온다"고 했다.

신도안 한가운데는 중봉(中峯)이라는 야트막한 봉우리가 솟아 있다. 작은 책상과 흡사하게 생겼는데 천황이 쓰는 책상이라 해 '어대(御臺)'라고 부른다.

중봉 앞에는 작은 들판들이 펼쳐져 있고 그 건너편에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이어진다. 이 봉우리들은 신도안의 안산(案山)으로 신선들이 무리지어 늘어선 형상이다.

주산인 천황봉이 상제형(上帝形)이고 앞의 안산이 신선(神仙)들이니 신도안은 하늘의 임금이 뭇 신하들과 조회를 여는 것처럼 생긴 형국인 상제봉조형(上帝奉朝形)의 명당이다.

이러한 명당 터는 왕조시대나 자본주의 시대와 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성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성자들의 시대에나 크게 쓰일 땅이다.

〈정감록〉에는 "한양의 기운이 다하면 정(鄭)씨가 새 나라를 세우고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긴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룡산 일대는 이상향(理想鄕)을 건설하려는 수많은 선인들이 찾아들었다.

새 시대는 바로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부터 찾아오는데 〈격암유록〉에는 2020년에 성자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전한다. 물질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새 시대가 임박하지 않았겠는가?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산골 송년회

아내는 묵을 쑤었다. 도토리가 풍년이었던 작년, 길가에 도토리나무가 늘어선 모운동 가는 산길에서 주워 묵을 해먹고 남은 것을 가루로 빻아 냉장고에 보관해 놨었다. 올해는 바쁘기도 했지만 도토리가 흉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예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솔이네로 가는 골짜기 길은 얼음이 녹지 않은 채 빙판을 이루고 있었다. 다행히 바퀴자국을 따라 얼음이 녹아있어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솔이네가 영월읍내 아파트에서 살다가 가재골로 들어온 지도 10년 세월이 뚝딱 흘렀다. 솔이네집은 강을 건너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골짜기로 접어들어 굽이굽이 몇 굽이를 돌고 돈 지점에 있다. 쓰러져가던 옛집을 고쳐 살면서 나무와 흙으로 새집을 지었다. 이어서 작업실 겸 민박 손님을 맞을 요량으로 본체의 반 만한 집을 또 지었다. 그렇게 집을 고치고 짓는데 5년 남짓 걸렸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집 짓는 모임에 합류해서 기술을 익히고 그들과 함께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 부부가 함께 흙을 이기고 벽에 붙이는 작업 끝에 만든, 땀으로 빚어낸 작품들이었다.

집 둘레에 심어놓은 묘목도 이젠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 집 앞에는 언제 또 만들었는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스로 연결하여 작은 연못도 만들어 놓아 제법 운치도 느껴졌다. 본체 옆 작은 공간에 정자도 만들어 갖출 건 다 갖춘 품새였다.

마당에 나와 있는 솔이 아빠의 손을 잡으니 두텁고 커다란 손이 믿음직스럽다. 나보다는 대여섯 살 아래지만 머리가 허연 모습이 오히려 형님 같은 사람이다.

아홉 집 남녀가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였다

어째 노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디…

옛집 나무대문을 본떠서 만든 바깥문을 밀치고 들어가 안쪽 문을 여니 사람들이 꽉 찬 거실 공간이 나를 맞는다. 맞아주는 사람들의 손을 익숙하게 잡아주며 키 낮은 탁자 앞에 주저앉으니 과메기와 술잔이 놓여있다. 이유야 각자 다 다르지만 산을 찾아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정이 느껴진다.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다. 어찌어찌 살다보니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일 년에 한두 번이나마 함께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얘기가 된 것이었다. 여름엔 계곡에서 물놀이 하며 먹고 마시며 놀고, 겨울엔 원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세상과 자신의 얘기를 나누며 아홉 집 남녀가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였다.

한 집에서 한 가지씩 가지고온 음식이 차례로 상에 오르는 가운데 술잔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해물전과 약밥이 오르고 잡채와 닭도리탕까지 모습을 보이자 상에 빈자리가 없는 가운데 떠들썩한 자리가 이어진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고추가 더 병이 많더라구. 약도 노지 고추보다 엄청 더 많이 쳐대고, 역시 자연스럽게 기르면서 손이 많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구.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름이 낀 쇠고기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마블링'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병든 고기 아닌감. 건물 안에 가둔 채 사료를 들입다 먹여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몸에 좋을 거냐구."

오가는 말들 위로 문득 '은하철도 999' 노래가 울려퍼진다. 노래가 한두 곡 더 불려진 뒤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사는 우구네가, 방안에서 다른 집 아이들과 놀던 아들을 불러내며 일어선다. 골짜기 길이 얼어서 산 밑에 가서 체인을 치고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앉아 있던 부인네들이 같이 가자며 일어났다.



"이거 오늘 자리가 너무 일찍 파한 거 아녀? 어째 노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디…"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쉬워하는 나와 '술자리가 길어지면 서로 좋을 것 없다'는 아내와의 다툼만 해가 가도 변함이 없다.

시인

현지사 소개 그 열네번째 주제 – 천수경 –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의 논지와 전혀 관계 없는 광고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는 힌두교의 시바신과 비쉬누 신에 대한 귀의 · 찬양문!!

진정한 관음신앙의 혁명!! – '영산불교의 〈새천수경〉'으로 올바른 관음신앙이 부활한다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상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자들과 친숙한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특히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는 불자들이 가장 즐겨 독송하는 다라니입니다. 지금도 수시로 독송되며 대비주 철야 기도가 성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수경을 비판하며 심지어 그 핵심을 이루는 대비주를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 있던 터이고 여기에 정법의 올바른 기둥을 세운다는 대의를 더한다면 그 진통은 새 생명을 위한 짧은 산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수경에 나타난 관음신앙과 대비주에 나열된 명호의 문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귀의 · 찬탄과 올바른 관음 신행자가 되고자 하는 발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그렇기에 관음신앙을 표방하는 대비주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번 등장하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어인 대비주를 한글로 해석해 보면 '관자재보살님'에 대한 귀의로 시작하여 '니라칸타–청경관음(푸른 목을 지니신 분)'을 비롯한 '바라하 목카–멧돼지의 모습을 한 분'과 '싱하 목카–사자의 모습을 한 분'을 찬양합니다. 그 밖에 '먀가라 잘마 이바사나야–호랑이 가죽을 두른 분'과, '가릿나 이나–흑사슴 가죽을 걸친 분'을 비롯하여 여러 명호를 불러 찬양합니다. 이 명호들은 문언적 해석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힌두교의 신을 지칭하는 명호입니다.

천오백년 역사를 거친 대비주의 권위

천년이 넘는 대비주의 권위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역사적 사료조차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자들에 의해 대비주의 해석상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대비주를 변화시키거나 파기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권위 위에 서서 이 다라니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주인이신 관세음보살님 혹은 또 다른 붓다의 지위에서의 사자후 일 것입니다.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대성자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렇게 큰 결함을 지닌 다라니가 천년 넘게 지속된 이면에는 대성자의 부재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직 공성(空性, 마음자리)의 철견과 증득만을 목표로 부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무형의 비인격적 이법(理法)인 공(空)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고로 대성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의 철견을 시작점으로 해서 염불 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로 들어가 32상80종호의 무량억종광 빛의 몸으로 이루어지신 무아 속 절대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법 · 보 · 화 삼신(三身)을 이루어야 붓다의 경지입니다. 오직 붓다라는 대성자의 출현만이 대비주의 진실을 열어줄 열쇠인 것입니다.

'붓다회상 현지사'에서 대비주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외도의 다라니입니다. 다라니는 화두와 달리 타력(他力) 중심이기 때문에 그 힘의 출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비주는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외도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비주를 통해 희유한 경계에 도달하거나 가피를 받아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힘의 원천이 불(佛)의 기운이라 할 수 없어 정법인 불법과는 나날이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행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붓다의 안목으로 〈천수경〉을 검토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새천수경>!! 이것이 다르다

1.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삭제하고 불보살님의 다라니로 이루어진 〈시무외청정 여의원만성취 제대다라니〉를 내놓았습니다.
2. '관세음보살님'의 붓다(정법명왕불)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잘못 알려진 좌우보처를 바로잡았습니다.
3. '관세음보살님'과 별개의 인격체이신 '대준제보살님'의 명호와 밀적조역제대보살님들을 분리하여 배열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변화신도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4. 각주와 해설을 첨부하여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새천수경〉의 구성을 우리말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5. 부록으로 '현지사 백팔대참회문'을 첨부하여 다겁생 동안 무수한 생을 살아오면서 신 · 구 · 의로 지은 악업의 허물을 참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천수경〉 80면, 5000원 –

《 신간안내 》

■ 21세기 대안(代案) 불교사상 '위대한 영산불교'
선불교, 위빠사나, 티벳불교 사상과 비교 논평.
수행론(수행방법), 수행목표(구원관), 불신관, 영혼체론, 생사관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한다. 부처님께서 유형의 초월적 인격체로서 계심을 확고히 하고 세존의 법의 가르침대로 육도윤회의 실존을 주장한다. 수행의 처음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를 설명하고 무아를 재정립한다.

■ 새천수경 해설서 근간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 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좋은 인연. 멋진 인생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 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전통 무예 : 선무도, 봉술...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어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비법약 전수 받으실 분
악성으로 인한 골수염, 관절염, 갑상선종양, 편도종양, 목, 허리, 디스크 등에 즉시 효능이 있음.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만 가능
무 료 치 료 : 스님에게 무료보시
010-6285-3703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사찰에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010-5792-3000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매주 화, 목요일 저녁7시
무료특강
남천홍 역리학원
02)725-6886
영가천도, 가정 사무실 방문 기도함
꿈바위 010-6789-5008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금광 자미두수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결정궁합
저자 : 김정희 원장 직접상담
기업은행 018-097249-01-011
사주,궁합,작명,운세,택일,신생아이름, 개명, 정신질환, 귀신병,우울증,이명,빙의치료,퇴마치료
02)921-1954 / 018-276-1954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번출구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영가천도의 간단한 방법
영통을 쉽게 할수 있는 특수부적,
급 매매 부적, 남녀 이성문제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기도 남양주
016-293-17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절 관리해 주실 스님)
▷삼척
010-9219-7695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동불 부처님 모셔가실 분
• 석가모니불 동불 부처님
2자 8치 좌대높이 18cm
상호는 아주 원만한 상입니다.
• 아미타불 동불 부처님
3자 좌대는 없습니다.
고려시대 고불 부처님이시며
상호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인도금은 전화 상담 후 결정
011-9837-866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비구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995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청, 지리산 보현암
010-3837-8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보시금 상담 후
010-2068-00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통도사 부근
011-9660-42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남양주
011-9491-9227

대방등 신통기도
• 전수받기를 원하는 스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0-1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큰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하게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011-854-8107
영축산 토방 .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학인 모집
100일 기도 및 고장, 경문, 교습, 문서 배우실 분.
(무속인도 환영)
지리산 천지암
061)781-1108
010-4175-1977

팔공산 묘적암 대중모심
• 불교마음수련원 원장 0명
• 종무원 0명
• 기타 뜻을 함께하실 사부대중 <승속 불문>
팔공산 묘적암
011-9371-8080

부전스님
모십니다
노스님 (60세 이상)
▷경북 문경
010-8819-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070-7760-5656
010-6487-5656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미국뉴욕, 중국 청다오
이점트 카이로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인터넷 역학(사주)강좌 안내
학습내용 왕초보 입문, 격과 그릇의 이해, 테마별 사주보는 법, 육친 통변의 날개 마음을 보는 사주통변 등 무료강좌 다수
사주 기초부터 고수까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보는 눈을 확 틔어 드립니다.
■ 인터넷 창에 '덕연풍수명리학회'를 검색 하세요.
■ http://www.sajuacademy.com
덕연풍수명리학회 문의 042)320-2444

포교당 주지스님 모십니다
▷ 50세 전후 (법랍 20년 이상) ▷ 조계종
▷승가대, 동국대 출신스님 환영 ▷보수 : 월 280만원 (공양주 포함)
▷승려증 및 이력서 지참 면담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52-23
051)782-0033

승복·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포布기氣법法을 아십니까?
포교활동에 활용되어 왔다하여 포기법(布氣法)이라 불리는 치유법! 50년 전통의 한국기치유연구회에서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법은 신비주의의 방술이 아닙니다. 수 많은 이가 말하는 그냥 그런 치유법도 아닙니다.
순수한 보건학문으로써 우리 민족의 스님들이 사용하던 그 치유법입니다.
스님 특별 지도반 및 개인 지도반 운영중
지 도 내 용
- 사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력 지도
- 기감을 통한 진단법 전수
- 통증 제어법(요통, 편두통, 생리통, 안면 신경통 등등)
- 원상회복법(척추측만, 디스크, 허리통증 등등)
- 세포재생법(간경화, 화상, 수술 후 빠른 회복 등등)
- 기능조절법(장 기능 정상화, 내분비 기능 정상화, 근육 기능 정상화 등등)
위 증상은 단 몇 번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02-3482-5032
(전화상담 시간 : 평일 10:00 ~ 18:00)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www.gihealing.com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무아 스님 황토 氣 토굴 최초 공개
- 항암 치료중 면역력이 떨어져 치료에 힘이 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분 (암, 당뇨, 성인병)
- 수술 후 몸에 기운이 없어 회복이 늦는 분.
- 항생제, 약물과용으로 배독을 해야 되는 분.
- 1회 체험으로 본인이 배독, 면역력이 증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氣 토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구 비슬산 약천사
상담문의 011-823-2460 / 053-423-2460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강생모집 ◆
풍수지리,수맥 전문가 양생교육
모집인원: 선착순20명
교육일시: 2011년2월13일 일요일 오전11시 6주코
교육장소: 교대역13번 출구 스타벅스건물 7층
◆ 수맥,풍수지리 상담 ◆
음택, 양택, 재혈,원격감정, tv.출연 이론입증
전화예약 ☎:1644~8457 동화자연지리회 www.dh21.kr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 45평 육합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인등 100등, 연등 165등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동해안)	• 위치 : 강원(동해안)	• 위치 : 경남 남해
• 법당 : 25평(목조)	• 법당및요사:50평	• 법당및요사:50평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000평	• 부지 15,00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 5천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 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84평
• 법당(신축)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단청완료, 주차장 300대
• 가액: 5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
• 부지: 2100평
• 건물: 법당 15평.삼성각.용왕각. 요사2동 각15평.
• 주위환경: 전면이 동해 바다가 보이며 좌청용 우백호가 있는 명지로서 약수가 있는 곳임.
• 가액: 2억 (절충가능)

010-8633-8472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충남 서산 터미널 뒤편
•평수 : 23평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시설비 500만원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2864-7284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건물30평 (법당,주방,방2개,화장실)
•삼존불,원불60불,산신각)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 - 549 -382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2층 건물중 2층
•법당20평,방1,화장실1,주방1
•포교원 개원하지 3개월 정도
•시설비 1천5백만원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특징: 양쪽 재래시장 있음 건강상 (급)양도, 유동인구 많음

010-3827-686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 마을 뒤 대밭있고
• "ㄱ"자 한옥 57평
• 대지 340평
• 가액: 2억 3천

010-4459-150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방사 많은 암자
• 대지 126평
• 건물 4동, 약 70평
• 가액: 1억 3천

010-5572-15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에서 2분거리
•자연녹지 300평, 건물허가 났음
•하천부지 약 300평 정도 사용
•법당(슬레트) 70평정도
•전세나 양도
•답사 후 결정,50년된 사찰

011-574-3303

친환경
삼베타올 SET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대지 약 160평
•건평 80평(1,2층)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포항근교
• 법당 목조 20평
• 요사채 40평
• 지하수, 심야전기
• 건평 680평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135-9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IC에서 3분거리
• 대지 140평, 주차장완비
• "ㄱ" 자 골기와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11-523-8881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평수 : 법당3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가액 : 1억 8천만원

043)852-05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대지 90평, 건평 140평
•4층건물
•가액: 5억 5천
•절충가능
•포교원 자리 적합함

011-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두 마리 토끼잡기 파격가
•평수 5천평
•2500평 분할가능
•전기 수도 완비
•주인직

010-4512-0813

부산시내최고중심가

• 평수 4층 약 40평 종무실
• 5층 요사채 30평,
• 큰방4, 주방
• 시설비 상담후 절충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근교
• 대지 133평, 삼존불, 약사여래불
• 법당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 살림가능,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비
• 가액: 1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8993-3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역앞, 재래시장 입구
• 4층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방3개, 욕실1,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31)821-8893
010-7576-8893

절(사찰) 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활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10-9333-8818/010-3521-69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 넓음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원목불단
• 집기 몽땅 넘겨줌, 몸만 오시면 법회함
• 융자 1200만원 포함 4000만원. 실인수금 2800만원

055-852-3397
017-722-775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바닷가
• 대지 : 107평 건평 149평
• 총 3층 건물 :1층상가 57평, 2층 사찰 52평, 2층 주택 40평
• 월 임대수익 230만
• 총가액 7억 8천만원(은:2억 3천, 보:9천 5백)

010-7925-33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시장앞
• 건물 4층. 요사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1,000만원 월 40만원

070-8842-610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봉사
• 창건주 : 황인화
• 주 지 : 보 륜 (최중도)
• 주 소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152번지 11/6반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재) 환희사
• 사찰설립 법인 대표 (주지) : 백경석
• 주 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천리 796번지

위 인 법인은 귀 재단(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힘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재단법인 지암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법하

"그래, 이젠 진짜 끊어야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이도 있을까. 석유 찌꺼기인 타르를 마시면서 아직도 식후일미, 일명 '식후 땡'을 포기하지 못하는 당신. 2011년 올해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금연 해보자.

흡연자중 약 70%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하고 30%가 이를 실천한다. 그 가운데 3~5%만이 금연에 성공한다. 그러나 금연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많지 않다. 담배를 수년간 많게는 수십여 년 간 피워온 이들이라면 대개 본인의 의지로 금연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적절한 약물치료가 요구된다. 니코틴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굿바이 니코틴 홀릭〉 저자이며 금연전문가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관욱 박사(부천우리병원)는 "금연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분 백이면 백 '담배 끊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금연을 하게 되면 보통 3~4kg정도의 체중이 늘어난다. 살찌는 것을 염려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고작 3~4kg에 호들갑 떨 것 없다. 담배가 주는 해로움은 20kg 과체중이 몸에 끼치는 해로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담배에 대한 오해

▶ 입덧 심하면 담배 피워라?

김관욱 박사는 금연진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 입덧이 한참 심할 때 시어머니께서 담배를 권해 흡연을 시작했다는 중년의 여성 환자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입덧에 담배를 권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부엌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설이에요. 정말 큰일날 일이죠. 흡연은 태아에게는 치명적이죠" 김관욱 박사는 임신 중 절대 금연을 강조했다.

▶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피우고 싶어서 피우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많은 애연가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니코틴은 스트레스 호르몬수치를 증가 시킨다.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하루에 20번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피우는 것이다.

▶ 담배는 기호 식품이다?

기호식품이란 말 그대로 기호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나 담배는 개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기호가 바뀌었다고 쉽게 끊을 수 없다. 매해 자기 의



지로 금연을 시행한 사람 중 5%미만이 1년 후 금연에 성공한다고 한다. 95%이상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담배는 기호 식품이 아니다.

▶ 요즘 담배는 순하다?

요즘 담배는 달달하고 향도 강하지 않아서 더 순하게 느껴진다. 이는 각종 첨가물 덕분이다. 달달한 초콜릿 맛, 향긋한 체리향도 첨가돼 한층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옛날 담배는 맛이 텁텁하고 연기도 강해서 깊이 빨아들일 수도 없었다. 담배가 순한 것 같은 착각에 더 많이 피우고 더 깊게 들이마시게 된다. 그래서 맛있는 담배 일수록 몸에 해롭다.

약물 의존도

1위	니코틴	4위	알코올
2위	헤로인	5위	카페인
3위	코카인	6위	대마초

금연 성공의 열쇠

▶ 담배보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라!

등산, 산책, 자전거 타기 뭐든 좋다. 정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바둑, 장기도 좋다. 흡연하는 어르신 대부분은 젊은 시절동안 일만하느라 담배 피우는 것이 여가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즐거운 일을 찾아보자. 가족을 위해 요리도 해보고 커피도 끓여보자. 흡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미를 찾아야 금연이 쉬워진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더욱 힘들다. 인생의 유일한 벗이 담배라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진짜 벗을 만들 때다.

▶ 나쁜 습관 버리기

김 박사는 흡연을 콧구멍 파기에 비유했다. "흡연은 습관입니다. 매일 20번씩 콧구멍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손을 묶어두고 콧구멍을 못 파게 한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 미치거든요. 코 파는 것은 중독성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무서운 거죠" 흡연은 나쁜 습관이다. 이를 알았으면 나쁜 습관을 버리자.

▶ '금연'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대표적인 금단현상이 바로 '짜증'이다. 보통 사람도 매일 하던 것을 못하게 하면 예민해진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그 예민함이 더하다. "금연은 가족 분들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금연을 시작한 남편이 또는 시아버지께서 짜증을 내신다면 금연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어디서 몰래 피우는 것은 아니구나, 진짜 실천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해 주세요"라고 김관욱 박사는 조언한다.

▶ 전자 담배 절대 사용금지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금연은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고치는 일이다. "담배 비슷한 것을 물고 빨고 하는 행위 자체가 금연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안전 검증도 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조잡한 것도 많아서 진짜 니코틴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절대 권유 안합니다. 금단현상이 심해서 힘든 분은 약이 좋아요. 의사에게 상담 받고 처방 받으세요"라고 김 박사는 강조한다.

3·3·3 법칙

담배 생각날 때 3분만 다른 것에 집중하면 금연 할 수 있다.

담배 생각나는 3일만 참으면 금연 할 수 있다.

담배 생각나는 3주만 넘기면 금연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나?

금연 결심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실패한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너 번쯤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실패했을 때 가족들의 계속되는 응원과 지지가 중요하다. 이때 비난하면 "다시는 금연 안 해!"라고 맘먹게 되는 것이다. 담배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데는 최소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했을 때부터라고 말한다. 1년 이전에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 갈수 있음을 가족들도 유념해야한다.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굿바이 니코틴 홀릭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3년간 40명의 장병들을 금연에 성공 시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관욱 박사가 출간한 〈굿바이 니코틴 홀릭〉은 군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담배를 넘어서 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30편의 글들을 정리한 것이다. 병사들이 담배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김 박사는 군대 자체도 힘든 곳인데 젊은 장병들의 몸까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설득했다고 한다. 1년에 고작 13명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금연연구학회에서는 "우와!" 하고 탄성을 자아낼 만한 기록이다. 애연가 아버지를 둔 덕에 '왜 담배를 피울까?', '어떻게 하면 금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 얻게 된 성과라고. 김관욱 박사는 현재는 부천 우리병원 내과 2과장으로 진료하면서 강연 등 청소년 금연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관욱 지음/ 북카라반 출판



건강칼럼

통즉불통, 기가 막히면 아프다
(痛卽不通)



이경제 원장
래오 이경제한의원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잘 통하면 건강하다는 것이고, 기가 막히면 질병이 생겼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기분 좋다', '기살린다', '기막히다'라는 말이 있다. 기분 좋다는 말은 기가 잘 나누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이고, 기살린다는 것은 기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기막히다는 기가 막혀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태를 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가 통하고,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힐까?

첫째, 호흡이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의 작용이다. 복식호흡을 통해 산소가 크게 돌면 기가 통하고 흉식호흡으로 산소가 작게 돌면 기가 막히기 쉽다.

호흡, 감정 다스리면 기살어

둘째, 감정이다. 슬퍼하고 분노하면 기가 과다하게 몰려 막히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도 지나치면 똑같이 해롭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면 기가 통한다.

셋째, 장운동이다.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된다. 잘 체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신경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도 기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배꼽 주변의 기가 막히면 변비와 설사가 생기고, 가슴 부위가 막히면 신경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장운동이 활발하면 기가 통한다.



턱관절 포인트

통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두통, 복통, 요통, 견비통, 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근원은 하나이다. 기가 통하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인 것이다.

이 중 두통에 대해 알아보자. 두통의 증상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수십가지가 된다. 이를 통증이 심한 부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전두통, 앞머리가 아프다. 2. 편두통, 옆머리가 아프다. 3. 후두통, 뒷머리가 아프다. 4. 전체두통, 머리 전체가 아프다. 이에 대한 증상은 다양해도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번째, 턱관절의 불균형. 턱관절이 불균형하면 경추 1번과 2번이 긴장하게 된다. 뒷목과 어깨가 긴장하게 되면서 두통이 생긴다.

두번째, 장기능 이상. 장운동이 저하되어 신경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어깨가 긴장이 되며 두통이 생긴다.

세번째, 눈의 피로. 눈이 피로하면 직접적으로 두통이 생긴다.

네번째, 뇌의 기능 이상. 뇌의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중풍(뇌경색, 뇌출혈)이 될 수 있어 위험하지만 이로 인한 두통은 극히 드물다.

다섯번째, 뒷목의 불균형. 뒷목이 불균형하면 두통이 생긴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 턱관절 불균형이다.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움직이는 양측성 관절이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왼쪽 턱과 오른쪽 턱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이다. 턱관절이 안 좋으면 입을 벌릴 때 소리도 나고 덜그럭하는 느낌도 들고 그 부위를 눌러보면 아프다. 이런 경우 껌이나 오징어를 씹으면 더 악화된다.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면 두통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턱에 해당하는 경혈이 있다. 귓불에 있는 턱관절 포인트를 마사지해주거나 침을 맞게 되면 효과적이다.

턱관절이 불균형하면 두통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이 불균형하면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게 된다.

거북이 목이 되면 어깨와 허리가 쉽게 피로해지며, 소화기능이 약해져서 잘 체하고 속이 더부룩해진다.

귓불에 있는 턱관절 포인트가 있다. 자주 귓불을 지압하자. 귀고리, 피어싱을 해도 되고, 스티커침을 붙여도 좋다. (02) 576-7575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인류 모두의 건강을 자신있게 책임진다

절수행♡절교육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수행 몸·마음 살아차림

청견스님 700만 배 절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한 가슴 찡한~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많습니다.

▸절을 빨리하여 숨이 차고 헐떡거리며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
절수행이 아니라 화난것!
▸절수행은 만병통치유의 가장 좋은 인류사의 최고 건강법
▸소원성취 업장소멸의 왕중왕 수행기도법!

KBS SBS 생로병사의 비밀 0.2평의 기적 다수방영

☎02)456-0035 (서울숲법당 · 부산 · 대구 · 광주)
www.법왕정사.kr
▶매주 화요일 절교육, 매일 절수행기도

정법을 닦아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리라

서은사1

앙산 혜적선사의 행화도량인 서은사(栖隱寺)는 강서성 의춘시에서 서남쪽으로 30km 거리에 있다. 의춘(宜春)에서 1박을 한 일행은 또 다시 순례의 여정을 서두른다. 의춘은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곳으로 종문불법(宗門佛法)을 성취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운 땅이라고 한다.

선종 오가(五家) 중에 임제종은 바로 의춘 황벽산(黃檗山)에서 싹을 틔웠고, 조동종은 의춘 동산(洞山)에서 이삭을 드러냈으며, 위앙종은 의춘 앙산(仰山)에서 열매를 맺은바, 의춘은 선종의 성지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다. 현재 위앙종의 10세(世)이자, 중국불교협회 회장인 일성(一誠) 노화상도 '의춘은 선종의 성지'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앙산은 연화분지(蓮花盆地)의 형상으로 운봉(雲峰)과 사자암(獅子巖), 백운산과 서당산(書堂山) 등의 빼어난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봉인 해발 1035m의 운봉에 쌓인 앙산적설(仰山積雪)은 예나 지금이나 순례자들의 마음을 깊이 정화시켜왔다고 한다.


앙산 혜적 선사에 의해 위앙종이 열매를 맺은 서은사. 앙산 선사의 오랫동안 교화를 펼쳐 일명 앙산사라고도 불린다.

탐원 스님에게 이름을 얻고 위산 스님에게 경지를 얻다

앙산 혜적선사는 광동성 소주(韶州) 회화(懷化) 출신으로 속성은 섭씨(葉氏). 9살에 광주(廣州) 화안사(和安寺)로 가 통(通)화상에게 출가하였다. 14살에 부모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스님은 손가락 두 개를 자른 뒤 꿇어앉아 "정법을 닦아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하니 부모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은 통 화상에게 다시 머리를 깎은 뒤 행각을 떠났다. 처음에는 남악 혜충을 시봉했던 탐원 스님을 참방하여 이름을 얻었고, 이후 위산선사 회상에서 경지를 얻었다. 일찍이 탐원 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었다.


법당에 엎드려 앙산 혜적 선사의 선풍을 기리는 스님들.

"혜충 스님께서 당시에 육대조사(六代祖師)의 원상(圓相) 97개를 모두 전해 받아다가 나에게 주시며 당부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 30년이 되면 남방에서 한 사미가 찾아와 이 원상의 가르침을 크게 일으키리니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이제 이 원상을 그대에게 줄 터이니 잘 받들어 지니도록 하게나."

그러나 앙산은 탐원 스님에게 받은 원상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어느 날 탐원 스님이 앙산을 불러 말했다.

"지난번에 준 원상들은 깊숙이 잘 간직해야 하네."

"그때 보고 나서 바로 불태워버렸습니다."

탐원 스님이 놀라면서 무엇 때문에 그 원상들을 불태웠느냐고 묻자 앙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 번 보고 원상의 뜻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원상에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탐원 스님은 앙산의 그릇을 인정은 했지만 그래도 원상이 필요한 뒷사람을 걱정하자, 앙산은 원상 한 개를 그려서 바쳤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곳이 없었다. 이후 앙산은 탐원 스님 곁을 떠나 위산을 찾아뵀다. 위산 스님이 물었다.

"너는 주인이 있는 사미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에 앙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 섰다. 그런 뒤, 앙산이 도리어 물었다.

"어디가 참된 부처가 계시는 곳입니까."

"생각이 있는 동시에 없기도 한 묘함으로 끝없이 타오르는 신령한 불꽃을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이 다하여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 성품과 형상이 항상하고 사(事)와 이(理)가 둘이 아니어서 참된 부처가 여여하리라."

앙산은 순간 단박 깨달은 뒤 위산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15년 동안 시봉했다.

〈앙산록〉을 근거로 삼아 보니 앙산이 위산을 처음 뵌 때는 회창법란 이전인 위산이 68세인 838년이 아닌가 싶다. 위산이 입적할 때까지 15년을 시봉했다고 하니 역산해 보면 838년, 앙산의 나이 32세가 되는 것이다. 수불 스님은 앙산의 성품을 얘기하시면서 기개가 있고, 천재성을 느끼게 하는 면이 다분하다고 평한다.

"탐원 스님도 혜충 국사라는 큰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 앙산을 쉽게 인가해 주었겠습니까. 어쨌든 탐원 스님은 혜충 국사에게 받은 원상 97개를 앙산 스님에게 주게 됩니다. 사미였던 앙산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앙산은 원상들을 다 불태웁니다. 탐원 스님이 그걸 없애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앙산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이 속에 다 있다는 듯이 원상 하나를 그대로 그려보였다는 것입니다. 앙산의 기개와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위산은 앙산의 그런 면을 탐원 스님보다 더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탐원 스님을 만나 선리(禪理)를 터득한 뒤 위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고서 공부에 힘을 받은 앙산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당돌함이라고 평한다.

"〈열반경〉에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되며, 마구니 말이 얼마나 되냐는 위산 스님의 물음에 앙산은 지체없이 당돌하게 온통 마구니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껄껄 웃으며 '앞으로는 너를 어찌해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스님은 앙산의 당돌함이 발현된 선화를 두어 개 더 소개해 주신다.

여름 안거 끝에 앙산이 위산 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위산 스님이 말했다.

"너는 한여름 내내 나를 보러 오지 않더군. 아래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한 뙈기 새밭을 매다가 종자 한 움큼을 얻었습니다."

"금년 여름을 헛되게 보내지는 않았군."

이번에는 앙산이 되받아치듯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한여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이에 위산 스님은 '뭐 그런 걸 묻나. 내 할 일 했어'라는 말투로 말했다.

"낮에는 밥 먹고 밤에는 잠을 잤다."

"스님께서도 금년 여름을 헛되게 보내진 않으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앙산이 죄송한 생각이 들어 혀를 날름 내밀었다. 그러자 위산 스님이 말했다.

"혜적아,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상하게 하느냐!"

앙산이 동평(東平) 스님 회상에 머물 때였다. 위산 스님이 동편 스님 편에 편지와 거울을 보내왔다. 앙산은 상당법문 중에 거울 꺼내 들고 대중에게 물었다.

"말해 보아라. 이것이 위산 스님의 거울인지 동편 스님의 거울인지를. 동평 스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산 스님이 보내온 것인데. 반대로 위산 스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편 스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바로 말한다면 깨뜨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깨뜨려 버리겠다."

대중 가운데 아무 대꾸가 없자 앙산은 '올해 농사는 신통치 않구나. 인편이 있으면 거울을 잘 받았다고 전해 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법상에서 내려왔다. 유리거울이라면 박살났을 것이고, 구리로 된 동경(銅鏡)이라면 찌그러졌을 터이다. 어쨌든 앙산은 스승 위산 스님이 보내준 거울이므로 오래 간직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일 텐데, 자신의 강개한 성정대로 깨버렸던 것이다.

석두 스님의 가풍은 금방 앙산 스님의 가풍은 잡화상

한편, 앙산은 법상에 올라 대중들에게 자신의 가풍을 드러낸 법문을 자주 한바 '석두(石頭)는 금방(金房)이지만 나는 잡화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광채를 돌이켜 살필지언정 내 말을 기억하려 들지 말라. 끝없는 예부터 밝음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허망을 좇는 뿌리가 깊어서 단박 망상을 없애기 어려운 그대들이 가엾구나. 거짓으로 방편을 베풀어 티끌같이 많은 겁 동안 쌓인 그대들의 굵은 알음알이를 뽑아주려 하노니, 마치 단풍잎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과 같도다. 어떤 사람은 백 가지 재물과 금과 보화를 한 자리에 섞어 놓고 찾아온 사람의 정도에 맞추어 팔기도 하지. 나 역시도 그렇지. 석두(石頭)스님은 금방(金房)이지만 나는 잡화상이거든. 찾아온 이가 잡화를 찾으면 잡화를 주고, 금을 찾으면 금을 주니까."

수불 스님은 선어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연표를 대조하라고 당부하신다. 그래야만 그때 상황을 잘 복기할 수 있고, 당시 스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옳은 말씀이다. 연표를 보면 위산과 앙산은 36살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참고해서 〈위앙록〉을 읽게 되면 위산이 아들 같은 앙산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고, 어느 자리에서나 주눅 들지 않는 앙산의 저돌적인 기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감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윽고 버스가 마을 앞 좁은 농로를 겨우 지나 서은사 주차장에서 멈춘다. 우리가 '앙산사'라고 부르는 절이다. 서은사의 옛 땅이 4000여 무(畝)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협소해 보인다. 수불 스님도 절 앞의 넓지 않은 논밭을 둘러보더니 '터를 보니 위앙종이 가장 먼저 끊길 만했군' 하신다. 선객과 시인묵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앙산적설도 이른 계절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온 산을 뒤덮고 있는 대나무들이 장관이다. 내가 "대나무들이 합장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옆에 서 있던 각정 스님이 한 마디 하신다.

"불보살님들이 대나무로 화현한 것 같습니다."

허술한 산문을 들어서자, 앙산 스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눈에 띄지만 앙산의 흔적은 느낄 수가 없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결혼하라는 부모를 설득하여 출가한 앙산의 기개와 스승에게 물려받은 귀한 원상들을 다 외우고 태워버린 천재성과 당돌함도 만날 길이 없다. 불사 중인 절은 어딘지 힘에 부친 듯 지쳐 있고 중국 스님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석가(小釋迦)로 불리던 앙산 선사가 회창 연간(842)에 개산하여 기라성 같은 고승들을 배출하였으니, 그 선풍(禪風)이 어느 인연을 만나 다시 회오리바람을 일으킬지는 눈 밝은 사람만이 알 것 같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진짜로 자부처를 믿고 열심히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지원에서 여러 귀빈들과 신도님들을 모시고 다 같이 한마음으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탁만 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삼천 년 전 부처님께서 미리미리 진리에 관한 건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 물질계에만 정신이 팔려서 허덕거릴 뿐이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해서 돌아간다는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만 보여 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이 부모를 잃고…. 저도 6·25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체가 장작개비 내뜨린 거와 같이 무더기 무더기 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강을 못 건너오고 모래밭에서 허덕이다가 총을 맞아서 픽픽 쓰러지는 걸 보기도 하고 수없이 쓰러진 시체들을 보기도 하고 총알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신차려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영령들을 위하여 이렇게 추모식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할 두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가 과거에 살던 참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에게 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섭류를 터득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연구 재료죠. 우리가 꼭 연구를 한다 하고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정돈하고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내 마음 한생각에 모두 자유로이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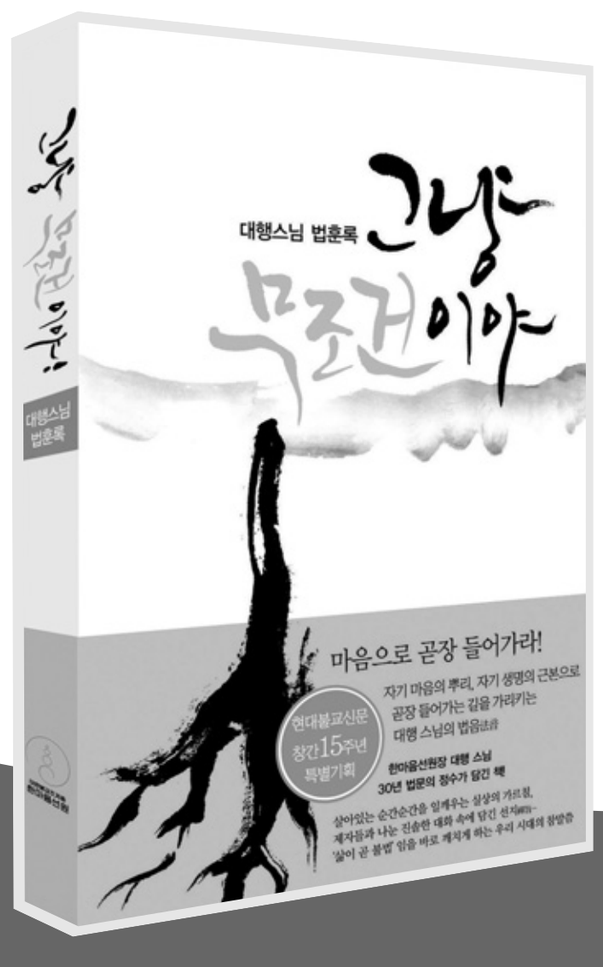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는 양반들이 살아나가면서 물질적인 문제 50%만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무상계 외우는 데서도 나왔지만, 죽으면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뭐가 남느냐 하면요, 지수화풍의 원소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 원소가 남음으로써 바로 불의 원소는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람과 물과 흙은 바로 살아나간 그것을 입력하는 데에 모든 역할을 하는, 내가 지금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기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합해서 영혼과 근본과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신계의 발전을 시키면 그 영혼과 근본이 둘이 아니게 다르지 않지만 마음의 공부를, 정신계의 공부를 안 하면 선장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듯이, 즉 말하자면 근본 따로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죠. 육신 따로 있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 하나가 전체 지수화풍이며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불성! '불'은 생명의 근본인 총장, 이름을 붙이자면 총장이 됩니다. 다음에 중장이 있고 고 다음에 소장이 있듯이, 대뇌에도 그렇게 총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바른쪽이 있지만 그 바른쪽 왼쪽을 같이 봉을 해서 입력이 되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리만큼 되었는데 지수화풍, 즉 바람과 물과 흙이 화해서 모두 입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들이고 내게 하는 심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지수화풍이 그렇게 되느냐. 지수화풍이 없다면 우리 몸도 없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 25면에서 계속

우리 몸이 없다면 영원한 불성도 없고 법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승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걸 잘 추려서, 그냥 한마디씩 잘 듣고 소화를 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지금 현대 용어로 하려니까 힘이 들죠. 허허허….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지금 현실에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컴퓨터는 한계가 있어서 입력을 해 놓은 것만 쓸 수 있지만 우리 자동적인 컴퓨터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컴퓨터로 가서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들이고 내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중용을 하는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 지수화풍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도 이것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렇게 들이고 내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찰나찰나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고 올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육근으로부터 육식이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의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뱅뱅 도는가 하면 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산 사람인 양 생각을 하게 되고, 강에 가도 빠져 죽을까 봐 강을 못 건너가게 되고, 불바퀴를 넘어서려도 타 죽을까 봐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일체 만물을 보고 살았던 것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뱀이나 귀신들이나 무서운 짐승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다 살아 있는 양 그려져 있는 그 환상 속을 실지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고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물속의 생명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자유로이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신이 되고, 움죽거렸을 땐 화신이 돼서 응신으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다 원해도 거기에 응하셔서 둘 아니게 건져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머리카락처럼 인생살이가 벌어진 겁니다. 인생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우리는 걸망 짊어지고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식들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그 의식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빈틈없이 의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철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자기네 집에서 걸망 짊어지고 놀러 나와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 자기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짧은 기간에 걸망 짊어지고 나와서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악업 선업이 다 합해서 차례차례로 차근차근히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치를 해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길은 단 하나 있습니다.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 놓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겠지만, 옛날에 어떤 선지식께서 앉아 계신데 어느 스님이 오셔서 "불법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까 "그거를 모르걸랑 네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배워 가지고 나오너라.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러더란 얘깁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자궁이라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자궁이기도 합니다. 무의 세계, 내가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그 섭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되놓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깊은 마음속에다 말입니다. 뿌리이기도 하고,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일체 만물의 나무들도 잎새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뿌리에 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지면 그 나무들이 다 죽듯이 인간도 영혼의 뿌리인 자기가 개개인에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항상 남의 형상을 믿고 형상을 찾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찾고, 허공을 믿고 허공을 찾고 이런다면 자기의 그 멋있는 뿌리는 언제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믿고 에너지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에너지는 이쪽 나무로 오지 않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에너지가 나무로 올라가서 그 나무는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서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그 요리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니 영혼들이 죽어서도 그렇게 정말 갈 데를 못 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자손 된 도리로서, 또는 부모 된 도리로서 진짜로 자부처를 믿고 열심히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자부처와 일체제불의 마음이 직결이 돼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깊이 들어가면 한마음으로 통신이 돼서, 대뇌로 가서 바로 소뇌로 직접 돌아가서 다시 대뇌로 와서 중뇌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찰나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갖는 것인데 우리는 몸속의 모든 의식들이 차례차례 나오는 걸 그냥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하고 생각을 막 해서 마구 저질러요. 마구 산단 말입니다. 한번 깊숙하게 통신을 해 가지고 대뇌로 통신이 돼서 바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한 찰나라도 심중 깊이 침착하게 굴려서 내놓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내놔지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 버려요. 그렇게 해 버리고 난 뒤에 후회를 하고 아무리 울고 펄펄 뛰어도 그때는 이미 저지른 일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다섯 가지 업식들을 어떻게 대치해야 하겠습니까. 잘 나오는 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잘못되는 거는, 꿈으로라도 잘못 꿨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굴려 놓으세요.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있으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놓고 굴려서 그대로 내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내 영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이름은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노릇도 하고 때로는 형님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딸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죠? 이름이 그렇게 많죠.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아내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딸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친구 노릇도 하죠. 그렇게 하시죠?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죠? "여보!" 하면 아내 노릇을 하게 되죠. 남자들도 그렇고요. 그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도, 한마음의 생각이 바로 아미타도 되고 아촉도 되고,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칠성부처도 되고 독성도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일체 만 보살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한생각에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현실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만 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경을 놓지 못하고 경을 보기 때문에 경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걸레를 빨아서 짜서 세숫대야에 담아 놓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놔요. 그러나 여러분이 금덩어리 돈뭉치를 가지고는 벌써 마음에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깊은 데 넣어 둬야지.'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 잊어버리지 않을 데로,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자기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먹는 거, 혼자 보는 거, 혼자 듣는 거, 혼자 버는 거, 혼자 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기 걸어올 때에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혼자? 오기는 왔는데 발자취를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걸어오면서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지 않듯이 우리는 공했단 말입니다. 안에도 공했고 바깥에도 공했어요. 마음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뛰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용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먹은 것도 없고 혼자 본 것도 없고 혼자 들은 것도 없고 혼자 산 것도 없고 혼자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위 공장 한 공장에서만 파워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몸은 쓰러집니다.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관리인, 심부름꾼, 바로 집합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집합소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름해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여래의 집이 아니라 전체 한데 합해서 돌아가는 걸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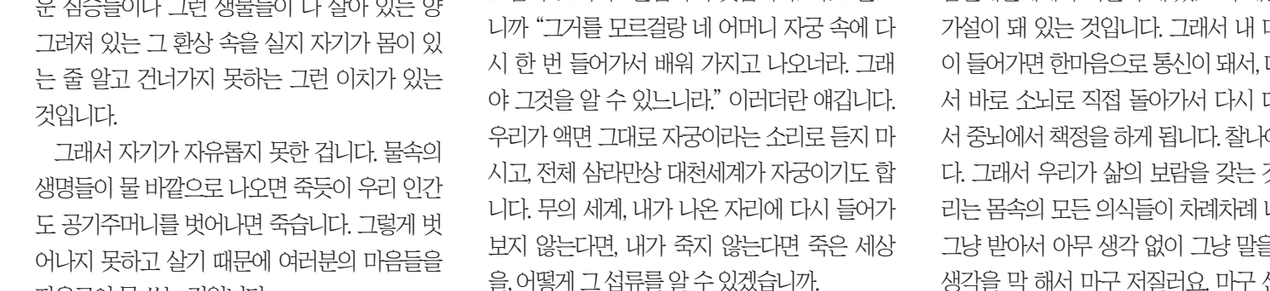
그런데 고걸 쪼그만 내 몸뚱이 하나로 축소해서 한번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내 몸속에서 서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는 게 없으니 아만통을 갖지 말고 '나' 라는 걸 세우지 말라. 혼자 한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으니 모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번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병 붙을 자리도 없고 번뇌 붙을 자리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는 분명코 왔는데 발자취를 걸머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는 살아도 함이 없이 살았단 얘기죠. 이 세상을 살되 함이 없이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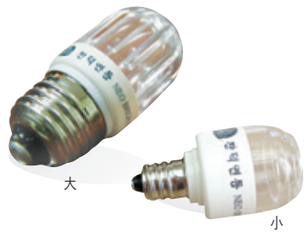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5년 3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팔각접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 한 LED 인등 ·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정도만 소요됩니다.



봉녕사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불자 세상보기

노인과 원로



이강렬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분주히 산행에 오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중년이 오는 소리를 듣고 노년이 다가오는 발걸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월 속에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소리 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즈음 개인적인 노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비책이 절실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일은 단순히 안타까움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이 먹는다고 모두가 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구가하는 노인들의 생활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문화예술계가 그렇다. 예를 들어 문학은 아마도 가장 효과적으로 나이가 역량이 되는 장르일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깊어지는 통찰과 경륜이 재기발랄한 젊은 작가들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경지를 그려낸다.

노인이 제목이 되는 소설인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가 63세에 발표하여,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오랜 기간 구상하다가 마침내 초고를 완성했지만, 수없이 고쳐 쓰기를 반복해 마침내 완성한 소설이다. 대어를 낚으려 분투하는 늙은 어부가 삶의 무상함을 순순히 승복하는 과정과 존재의 고결함을 일깨워 주는 명작이다. 전편에 걸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완숙함이 묻어난다. 이쯤 되면 노인은 그저 나이 많은 이가 아니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삶을 성찰하는 깊이 있는 존재로 드러난다. 인생의 부침 속에서 체득한 경륜과 지혜로움이 젊은이들에게 분명 좌표가 되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지만 관심과 복지정책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치매 등 질병에 시달리며 고독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독거노인들이 늘면서 자살률도 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90%가 동거나 비동거 자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인들 중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거나, 소외 또는 고립된 상황하에서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오늘의 노인문제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제기된 문제이므로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은 없는 것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진 이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현실성을 지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생활비용을 벌게 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으로 노동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고, 경륜이 사회발전의 역량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청장년층 실업자가 늘고 있는 사정이니 그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일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겠지만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자리 등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가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노인들이 그러한 약자이며 또한 가치이기도 하다.

장자(莊子)에 춘(椿)이라는 나무가 나온다. 춘은 8000년을 봄으로 살고, 다시 8000년을 가을로 사는 나무이다. 그러나 크기만 하지 별 쓸모가 없다. 쓸모없기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지만 천수를 누리며 큰 그늘을 만든다. 말없이 오래도록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이들 사회의 노인들이 바로 원로며 춘이 아니던가.

사부대중 칼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



오심 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새해가 밝았다. 음력 정월 초하루가 아직 멀어서 불가(佛家)에서는 새해인사 하기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양력을 쓰는 사회 통념상 저마다 연하장이나 새해인사가 한창이다. 새해인사들로 휴대폰 문자함이 쌓여서 때로는 귀찮아 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여기에 스팸문자까지 겹치니 실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러울 때도 더러 있다.

지난해는 우리 불교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호기를 맞이한 중요한 해였다. 이명박 정권과 집권여당의 위정자들이 불교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불교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시대와 백성이 어려울 때 마다 종교의 본연은 뒤로 한 채 시대와 백성의 편에 서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왔다. 구국의 길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한국 불교가 100년도 채 되지못한 서구문화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밀려 온갖 박해를 받아야 했던 한해였다.

어쩌면 잘된 일이다. 우리 불교가 언제부터 정권의 눈치나 보고 살아왔던가? 조사스님들이 피땀으로 불법을 계승하고 전통을 지키고 아름다운 산야를 목숨처럼 보존해 오늘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지 않았던가! 조선 500년의 쓰라린 불교 박해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오롯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턱밑에 송곳을 꽂아 두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던 수많은 대선지식이 있었다. 중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불교였다. 뿐만 아니다. 아래로는 가람수호와 중생제도에 전념하기 위해 닥종이나 소금을 팔아가면서 사찰을 가꾸어 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화재로 남아있다.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보존된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반문하고 싶어진다.

중국의 장강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은 뒷물의 도도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편도 결코 아니다. 역사는 정의이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는 아름다운 민족이다. 아름다운 민족은 물질의 문명에서 벗어나 옛것은 존중하고 보존하며 새로운 미래를 즐겁게 준비한다. 우리는 현재 작은 것에서 다툼과 이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약소민족으로 평가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작은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타종교의 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리석음에 분노한다.

종교는 신성해야하고 종교인은 정의롭고 자비스러워야하며 이웃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 종교인은 신도들을 정의롭게 이끌어야하고 배려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인일 것이다.

작금의 위정자들과 그릇된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는 아무리 마음을 열어 놓고 바라보고 백번 양보해서 바라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벽암록〉에 이르길,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한다"고 했다.

이 생에서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누구에게든 하루는 24시간만 주어진다. 주어진 시간 안에 꼭 무엇인가를 이룩해야겠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월이 약이지요"하며 마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현재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성 있게 실행으로 옮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후세의 불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남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눈 밝은 납자들이 수행으로 서릿발같이 정진하고, 사찰 종무를 책임진 소임자들은 일심으로 부처님 성전을 외호하는 철저한 수행의 길, 서로의 본분사를 지키는 것이 여러 외압으로부터 당당하게 불법을 지켜내는 최선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은 오늘을 무사히 보내야만 온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까닭일 것이다.

우리 불교의 홀로서기가 용두사미처럼 되지 말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해 본다.

社 說

스마트폰 앱 더 많이 더 빨리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보급돼 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앱 개발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이유인 즉 매 건마다 새롭게 제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작업이 되풀이되기 때문이었다.

생각을,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자. 애플리케이션마다 개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가 나서 포교용 개발 툴을 만들면 된다. 누구나 좋아하는 경전을, 자신이 택한 스님의 법어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앱을 만들면 된다. 팔만대장경의 툴은 사각 목판, 그 안에 새겨진 글만 다르지 않았는가.

올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이다.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을 보라. 대장경은 마땅한 미디어가 없던 시절,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원력으로 한 자, 한 자 새긴 결과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모니터, 핸드폰 등 스크린에 보여야한다. 그러려면 웹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이다. 이제는 불자들이 한 자씩 타이핑으로, 한 번씩 클릭으로 불사를 이루는 시대이다.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타이핑으로 클릭으로 이룰 수 있는 툴이, 앱이 필요하다. 인터넷 · 스마트폰 포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하는 길이 아니다. 지혜로 함께 걷는 길이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성보문화재, 불교계 소유 확실히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 태고종 선암사의 성보문화재를 보관한 선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열람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태고종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가 1월 4일 신년하례법회 이후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종단 원로 스님 등과 성보박물관 및 성보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를 둘러보기 위해 순천시에 해당 장소의 개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11일 "성보박물관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므로 관람시간 내에 관람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관람하는 곳이 아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박물관 관계자 이외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아 단순히 수장고를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선암사에 보내왔다.

대법원은 8일 개태사가 국보 제213호 금동대탑을 반환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문화재단의 "금동대탑은 1987년 이병철 前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적법하게 기증 받은 것으로 개태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간법상 재산관리인이 사찰과 분리되고, 성보가 동산으로 취급돼 소유권 운운해 벌어진 일들이다.

불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에 있더라도 사찰 소유"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보존관리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관리를 맡겨왔다.

그나마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경주 불국사 석가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반환 받은 일이 위안이 된다. 이 전례를 살려 불교문화재 소유권이 불교계에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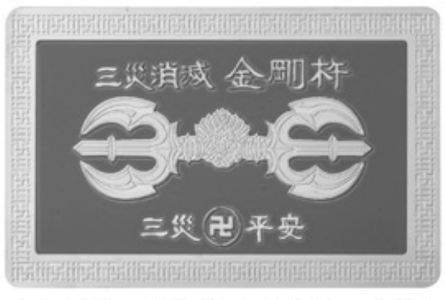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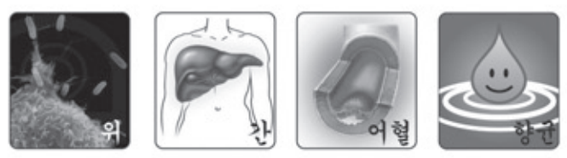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 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 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痞結腫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股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상상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밀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던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아침에 숙변이 검정색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1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무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감사드리며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에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정상이 없어 퇴원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9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이 없었습니다. B 방송국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더니 놀랍게도 간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0일경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혈색이 좋아지는 것으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 로 낮아졌음.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치료 복용해 왔던 바른우종이 완치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한것에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이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웃분에서 아토피 좋은 제품이라 옻가게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먹게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 대청소와 사우나. 1년정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게 제품을 먹으면서 부터 서서히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아토피 부위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려워 긁어 상처가 생겨나고 피가 나고 하였지만 계속 먹었더니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1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무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감사드리며 옻가게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since 2000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